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성경공부 교재

에스겔서 영맥풀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얻는 길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없애시고,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 차CONTENTS



제 1 장	에스겔서의 개요 _	5
제 2 장	에스겔의 환상 _	32
제 3 장	이스라엘의 죄악 _	100
제 4 장	에스겔 성전 _	138
제 5 장	천국의 생명수 _	222
제 6 장	곡과 마곡 전쟁 _	232
제 7 장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_	253





1 장

/

에스겔서의 개요

제 1 장 에스겔서의 개요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포로가 된 에스겔

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 1) 에스겔이 예언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왕하 24:10-16).

[왕하 24:10] 그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왕하 24:11]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왕하 24:12]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

- 앗수르 제국의 경우엔 포로로 잡아오기보다는 점령한 도시의 사람들을 다른 도시 사람들과 바꿔치기 하면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혼합시키는 정책을 펼쳤지만 바벨론 제국의 경우엔 점령한 도시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때는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 갔습니다.
- 3차 침공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3)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들이었습니다.

- 평범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 2차 침공 때는 1차 침공 때와 같이 능력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 하지만 1차 때는 2차 때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

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왕하 24:13]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하 24:14]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하 24:15]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하 24:16] 또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단 1:1-6).

- 4)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 갔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겔 1:1-2).
- 5) 여호야긴 왕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30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눅 3:23).

[단 1: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가 있었더니

[겔 1: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겔 1: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년 그달 초닷새라

[눅 3:23]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나. 에스겔 아내의 죽음

- 1) 에스겔은 결혼을 한 상태로 보여집니다(겔 24:16).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가 있었습니다.
- 2)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아내는 눈에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에스겔도 아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에스겔에게 기쁨이

[겔 24:16]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생명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설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아래 인도받는 것입니다 (잠 16:9).

4)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 제사장은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죽을 때 슬퍼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레 21:1-3).
-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의 죽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음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애국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레 21:10-11).

5)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겔 24:17).

-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겔의 직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 에스겔이 대제사장보다 더 한 수 위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에스겔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 만일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가족 외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에스겔이라면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레 21:10]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레 21:11] 어떤 시체에 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겔 24: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다. 에스겔 아내의 장례식

- 1) 에스겔의 아내가 죽자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음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겔 24:17).
- 2)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 사람들이 에스겔의 그런 태도에 의아해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문상을 온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겔 24:19).
- 3)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문상을 온 사람들에게 그 의도하심을 알려 주셨습니다(겔 24:21).

[겔 24:17]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겔 24: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 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겔 24: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엮드려 지게 할지라

4)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으니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더럽힘을 당할 것이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울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 알려 주시려고 일부러 에스겔에게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겔 24:23).

[겔 24:23]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5) 자녀가 죽임을 당했지만 자녀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 그만큼 이스라엘의 멸망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황당하게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의 표징을 보여줍니다(겔 24:24).

[겔 24:24]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6) 만일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이 부모가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어떻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까요?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정결과 거룩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 에스겔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에스겔처럼 가슴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가장 큰 아픔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

에스겔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1-3장):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둘째 부분(4-24장):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셋째 부분(25-32장):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넷째 부분(33-39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언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부분(40-48장): 메사야 왕국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 1-3장의 개요

- 1) 1장: 에스겔은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꽃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주위의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 2) 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전할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 3) 3장: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맡기시며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에스겔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나. 25---32장의 개요

- 1) 4-5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2) 6-7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 3) 8-11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기에 결국 멸망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 4) 1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가 되어 그들의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 5) 13-14장: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

에게 거짓말을 전하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런 그들에게 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다. 15-32장의 개요

- 1) 15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용한 포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본래 열
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 2) 16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린 여인에
비유하여 그들의 타락을 설명하십니다. 하
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보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곤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
속하십니다.
- 3) 17장: 하나님은 두 독수리와 가지의 비유
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첫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며 두번째
독수리는 애굽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

론 왕을 의지했지만 애굽 왕에게 돌아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 4) 18장: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각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하십니다.
- 5) 19장: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 애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들을 설명하며 슬퍼합니다.
- 6) 2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왔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 7) 21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들고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명확히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벌하실 때는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 8) 22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큰 죄악들을 나열하시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불의, 폭력, 타락, 부패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 9) 23장: 하나님은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타락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10) 24장: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 하시며 에스겔에게 '이제 너의 아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슬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11) 25-3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십니다. 아람, 모압, 에돔, 블레세, 애굽 등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법과 정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라. 33-39장의 개요

- 1) 33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전달하는 사람이므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 2) 34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지도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3) 35장: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하십니다.
- 4) 36-37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시며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그셀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 5) 38-39장: 하나님은 고골이라는 나라가 이

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40-48장의 개요

- 1) 40-48장: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다시 주시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리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3. 역사적인 배경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기 동안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기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적 배경

- 1)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고, 그 후 남왕국 유다는 약 140여 년 더 존속했습니다.
 -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기원전 597-586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으나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 결국 그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 이는 유다의 최후의 순간이었으며, 이 사건은 유다 백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과 상황

- 1)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기 직전에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 바벨론 제국의 공격이 시작된 시점은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입니다.
 - 이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 2)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감(기원전 605년): 이 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입니다. 이들은 왕실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 3)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감(기원전 597년):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 이때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 이 시점에서 유다는 사실상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4)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감(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며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 이때 모든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 왕국의 종말이 확정되었습니다.
- 5) 바벨론 포로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적, 영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 에스겔의 생애와 사명

- 1)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국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당시 약 25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30세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이후 2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 2) 에스겔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 둘째, 그는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했습니다.
 - 에스겔은 매우 강력한 예언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라. 바벨론 제국과 그 영향

- 1)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며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의 광대한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다신론적이며, 신들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또한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한 문명으로, 건축, 예술, 과학 등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정복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 그들은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 또한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 에스겔서의 주요 주제

- 1) 하나님의 심판: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며, 특히 우상 숭배와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응징을 하실 것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 2) 회복의 약속: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예고합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특히 36장과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골짜기에서의 마른 뼈들)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3)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

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 4) 개인의 책임: 에스겔서에서는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5) 새로운 성전과 왕국: 에스겔은 40장에서 48장에 걸쳐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 에스겔서의 신학적 의미

- 1) 에스겔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죄와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 2) 에스겔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찾고, 죄의 대가를 치르며, 그 후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2 장

/

에스겔의 환상

제 2 장 에스겔의 환상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첫번째 환상

가. 네 생물

- 1) 에스겔의 첫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모습이었습니다(겔 1:4-5).
- 2)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 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단 쇠 같은 것이 나타

[겔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겔 1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있더라

나 보였습니다.

- '단 쇠' <하쉬말>은 금과 은의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금속입니다.
- 그런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네 생물은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그룹에 대한 내용이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 이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에덴동산을 지켰던 그룹과 같은 천사입니다 (창 3:24).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들과 두루 도는 불 칼
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
을 지키게 하시니라

3) 성막의 지성소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인 속죄소에는 두 그룹 모양의 천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 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언약궤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속죄소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그룹을 속죄와 하나로 붙여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룹과 속죄소는 델래야 델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출 25:19).

4)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같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 각각 한 생물에 네 개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의 얼굴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겔 1:10).
-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물은 곧 천사인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역시 거룩해야 합니다(레 11:45).
- 또 다른 얼굴은 사자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용맹함입니다. 천사는 용맹합니다. 하나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님의 백성은 용맹스럽습니다. 작은 짐승같지 아니하고 사자같이 용맹스럽습니다.

- 또 다른 얼굴은 송아지 모습입니다. 송아지는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 또 다른 얼굴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고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고귀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고귀합니다.
- 각각의 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얼굴은 모두 우리가 지녀야 할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해야 합니다. 소처럼 충성되어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고귀해야 합니다. 생물의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한 생물마다 네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은 여섯 날개인데 에스겔서의 생물은 네개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습니다(겔 1:11).

[겔 1:11]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천사

- 1) 이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갑니다(겔 1:12).
- 2) '영'<르아흐>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이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천사는 성령님을 따릅니다.
 -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을 따릅니다.
 - 천사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나아갑니다. 우리도 돌이키지 않아야 합니다. 곧장 앞으로 가야 합니다.
 - '돌이키다'<사바브>는 '돌다', '둘러싸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턴을 말합니다. 곧바로 가야 하는데 유턴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유턴하면 안 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큰일납니다. 즉시로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창 19:26).

[겔 1: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 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창 19: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3) 에스겔이 본 생물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이었습니다(겔 1:13).

- 천사는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천사는 불꽃처럼 일을 합니다(히 1:7). 우리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천사는 번개와도 같습니다(겔 1:13). 번개는 빠릅니다. 천사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빠르게 일을 해야 합니다. 느리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 또한 생물들은 서로 번개같이 왕래합니다(겔 1:14).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번개처럼 서로 왕래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왕래합니다. 이는 저들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

[겔 1: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서는 번개가 나며

[히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도

[겔 1:13]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서는 번개가 나며

[겔 1:14]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다.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

- 1) '네 생물'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단 7:3-7).
- 2)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에스겔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그룹을 상징합니다(계 4:6-8).

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

- 1) 에스겔이 생물들을 자세히 보니 그 생물들 옆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겔 1:15). 그런데 그 바퀴들이 매우 높고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겔 1:18).
- 2)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단 7:5] 다른 짐승 곧 들 췌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 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단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계 4:6] 보좌 앞에 수경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하더라

[계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

-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는 동서남북 어디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천사가 아주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즉시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 하나님의 천사는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합니다. 느리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천사는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종입니다(히 1:14).
- 3) 우리가 천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천사는 즉시로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에 즉각적으로 일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바퀴는 직진으로만 갑니다. 유턴하지 않습니다(겔 1:17).
- 4) 천사는 한번 받은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뒤돌지도 않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돌진합니다.
- 놀라운 것은, 바퀴에 수많은 눈이 붙

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 4: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겔 1: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겔 1: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히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겔 1:17] 그들이 갈 때에

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겔 1:18).

- 5) '눈'은 곧 하나님의 눈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켜보는 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지켜보는 눈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졸지 않고 지킬 때의 눈입니다(시 121:4).

- 6) 바퀴는 생물과 함께 움직입니다(겔 1:19).
- 생물과 바퀴는 일심동체입니다.
 -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위해 바퀴를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일을 잘 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자가용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용으로 세상의 정욕을 위한 곳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 생물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갑니다(겔 1:20).

- 7) 그런데 바퀴들도 그와 같습니다. 바퀴는 오직 생물을 따라 갑니다. 바퀴는 생물이

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겔 1:18]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 하며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겔 1:19]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겔 1: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서면 서고 가면 갑니다. 바위가 생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면 우리도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면 우리도 가야합니다.
-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갔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정박했고 다시 구름기둥이 발행하면 백성들도 속히 함께 떠났습니다(출 40:36-37).

8)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습니다(겔 1:22). 그런데 보기에 두려웠습니다.

- '수정 같은 궁창'은 얼음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 생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습니다(겔 1:23).

8)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

[출 40: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출 40: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겔 1: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겔 1: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외함입니다.

- '경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두렵고 떨린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겔 1:24).

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 1)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많은 물 소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웅장합니다. 장엄합니다. 매우 권위적이며 큰 권세가 느껴지는 음성입니다.
 -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 그는 궁창 위에 보좌를 보았는데 보좌에 사람의 형상을 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겔 1:26).
- 2)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그 허리가 '단 쇠' 같아보였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아 보였습니다. 그 허리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겔 1:27).

3) 그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양은 '여호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겔 1:28).

- 여호와와 영광은 이처럼 광채가 납니다. 이처럼 장엄합니다. 이처럼 뜨겁습니다. 때로는 불과 같으며 때로는 바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웅장하며 때로는 장엄합니다. 때로는 깊이가 있으며 때로는 넓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들어감이 있고 때로는 내비치는 빛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때로는 환하고 때로는 은은합니다.
- 에스겔은 이러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런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 복된 사람입니다.

[겔 1:27] 내가 보니 그 머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머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겔 1: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다.

2. 두번째 환상

가.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겔 3:1).
 -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었더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겔 3:3).
- 2)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시고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셨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이듯이 그렇게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 3)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먹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 예레미야도 말씀을 사모했습니다(렘 20:9).
 -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고 대

[겔 3: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 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겔 3: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행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 4)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 눈으로 읽는 사람은 백 번을 읽어도 성경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을 먹은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글로 써진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 하지만 그 말씀이 뱃속까지 내려가고 뱃속까지 심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을 가리켜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고스> 말씀을 볼 때에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나.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스라엘

- 1)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외국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틀림없이 저들이 에스겔의 전한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

입니다(겔 3:6).

2) 실제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 니스웨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스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셨습니다(겔 3:7).

3) 겔 3:7절에 언급된 '이마'라는 단어는 사람의 결심이나 어떤 결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까지 강인한 자세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겔 3:6] 너를 언어가 다
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
가 그들의 말을 알아 듣
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
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
을 들었으리라

[겔 3:7] 그러나 이스라
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
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
이니라

다. 7일간 숨어지낸 에스겔

- 1) 에스겔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물과 함께 하는 바퀴 소리도 들었습니다(겔 3:13).
- 2) 에스겔은 이들의 소리가 매우 큰 소리였으며 울리는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생물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들에게서 '많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겔 1:24).
- 3)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칠 때 소리가 났습니다.
 - '부딪치다' <나샤크>는 말은 원래 '입맞추다', '포옹하다'라는 말입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질서없이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조화로우며 질서있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하염없이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 마치 곤충의 날개에서 소리가 나듯이 생물들의 날개가 열심히 움직일 때 이

[겔 3:13]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이기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이기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러한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겔
3:14).

[겔 3:14] 주의 영이 나
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
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
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4) 도대체 왜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과 분한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요? '근심' <마르>이
라는 단어는 '쓴', '괴로운'이라는 뜻입니
다. '분한 마음' <하마트 루하>은 '영의 열
기'라는 말로 '진노', '분노'라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의 마음에 괴로움
이 생겼을까요? 왜 에스겔의 마음이 '분노'
가 생겼을까요?

-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
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
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괴로움
과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근심'
과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
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
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
다. 이런 마음은 평범한 성도에게서 일

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선지자에게서 일어납니다.

-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 에스겔은 이런 '근심'과 '분노심'을 가지고서 두려워 떨어졌습니다. 숨고 말았습니다(겔 3:15).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근심'과 '분노심'이 차올랐으나 숨고 말았습니다. 혹 당신도 에스겔처럼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겔 3:15] 이에 내가 델아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밭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일을 지내니라

라. 7일 후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에스겔

- 1)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겔 3:16).

[겔 3:16]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2) '칠 일'은 에스겔이 숨어 지낸 날들입니다.
- '칠 일'은 그가 두려움에 가득차있는 날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칠 일'이 있습니다.
 -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부담되어 숨어 지낼 때가 있습니다.
 - 엘리야도 두려워 숨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 그는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 '칠 일'이라는 숫자는 에스겔의 두려움이 떠나는 숫자입니다. 두려움의 인간에서 강력한 선지자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숫자입니다.
 - 하나님은 숨어 지내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겔 3:17).
- 3)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1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겔 3: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4) 하나님은 에스겔에 "만일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의 죄값이 너에게 임할 것이지만 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백성의 죄값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되리라"고 협박의 말을 하셨습니다.

- 에스겔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백성이 죄값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때에 모든 피값이 에스겔의 몫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이상 에스겔로 하여금 숨을 곳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에스겔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5)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 목사로 임직을 받았지만 평신도처럼 지내는 목사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한 사람입니다. 목숨이 여러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의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 혹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당장에 나오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당신도 죽고 가족도 죽습니다.

마.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겔 3:22).
- 2)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로 나가야 합니다. 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들은 고요한 곳입니다. 들은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짐승의 방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사람의 방해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전할지 모르나 많이 먹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듣는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 3) 에스겔은 들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에스겔이 들에 있었을까요?
 -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들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겔 3:2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에스겔은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숨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있게 체험했던 것처럼 영광을 체험했습니다(겔 3:23).

4) 에스겔이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체험했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느라 하나님의 영광체험의 느낌을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 그럴 때 에스겔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린 것은 다시금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확립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 집에가 문을 닫고 기다리라

- 1) 그런데 놀랍게 성령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겔 3:24).

[겔 3:23]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겔 3:24]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 왜 성령님은 에스겔에게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고 명하셨을까요?

- 선지자로 선택 받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무수히 많이 겪습니다.
- 그 당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2주 정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이지만 그 외에도 성경을 가르쳐야 했고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에스겔은 집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 더 이상 집 안에만 갇혀서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인데 언제까지 집 안에만 갇혀 생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사로잡은 것입니다(겔

3:25).

4)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에스겔은 빠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습니다(겔 3:26).

-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병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병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병어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백성을 꾸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선 병어리로 만드셨을까요?

[겔 3:25]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겔 3:26]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길 원하셨다

- 1)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 오늘날 목사 중에는 자신의 뜻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

한 것을 전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자신이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목사들은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병어리가 되었는데 이들도 병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들려집니다.

- 2) 에스겔은 선불리 선지사역을 행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어리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병어리가 되면 어떻게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십니다(겔 3:27).

- 3)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눌 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될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눌 때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신의 음성을 더하지도 말고 자신의 뜻을 더하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할 때 입이 열린다는 말씀

[겔 3:27]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예수님께는 이것이 매우 중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에스겔
과 같은 체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전하셨습니다(요 5:19,
8:28, 12:49).

4)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라면 에스겔의 교훈을 배우십시오.

-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
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하십시오.
당신의 뜻을 더하지 마십시오. 당
신의 지식을 전하지 마십시오.
- 당신의 생각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예수님
이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
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
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
들이 아버지께서 하시
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
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
나니 아버지께서 행하
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
와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
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
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
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
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
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
으니

3. 세번째 환상

가. 주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셨다

1) 에스겔의 두번째 환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서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겔 8:3).

2)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한 형상을 보았는데 그는 허리 위에는 불과 같고 허리 아래는 단 쇠와 같았습니다(겔 8:2).

3) 칠십인역에는 '불'대신 '사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사람 형상을 보았습니다.

- 예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처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에스겔의 이러한 환상 체험은 그가 포로로 붙잡혀온지 육 년 유 월 오 일에 일어났습니다(겔 8:1). 날짜를 계산해

[겔 8:3]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겔 8:2]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같은데

[겔 8:1]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와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보면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을 때가 기원전 597년 이고 6년 6월 5일째를 계산해보니 기원전 592년 8-9월경입니다.

-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북향한 문으로 가셨습니다. '북향한 문'은 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예수께서 왜 에스겔을 북쪽의 문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이 악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세력이 북쪽을 통해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나. 성전에 있는 우상들

- 1) 에스겔은 북향한 문에서 우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이름은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겔 8:3).
- 2) '질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의 이름이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 일으킬만한 우상이 성전 북쪽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지 못합니다. 아

[겔 8: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마도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대표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이러한 우상들 외에 이방 나라로부터 가져온 우상도 많았을 것입니다.

- 아하스 왕은 아예 우상을 위한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 버리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앓수스를 방문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제단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의 모습을 그려서 그걸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만들라 명했습니다.
-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성전에다가 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부 왕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우상을 더 잘 숭배하기 위해 성전의 일부분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은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들이 세운 우상

은 하나님께 '질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시키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를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나 1:2).

- 3) 하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겔 8:6). 하나님께서 떠나길 원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어쩔 수없이 떠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까? 짐승을 내 쫓듯이 그렇게 쫓을 것입니까? 월세를 못낸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낼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나 1:2]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겔 8: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4) 주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뜰 문'으로 데려가셨습니다(겔 8:7).

- 이 '뜰 문'은 성전의 바깥 쪽에 있는 뜰입니다. 그 뜰의 좌우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우상 숭배의 행위를 감추고자 담을 쌓았습니다.
- 이들이 쌓은 담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슨 구멍일까요? 왜 담에 구멍이 나 있을까요? 그 구멍은 사람들을 살피는 구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설치한 구멍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악한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망보려고 만든 구멍입니다.
- 어찌하여 저들은 이런 구멍을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저들의 심령에 구멍을 뚫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심령에 구멍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구멍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구멍을 뚫어야 했

[겔 8:7]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습니다.

5)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 명하셨습니다(겔 8:8).

- 그 담을 헐었더니 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문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더니 참으로 추악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겔 8:10).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 이런 것들은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사장들의 숙소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일까요?
- 혹 당신의 심령에도 이런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는지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방을 열면 혹시 우상들이 가득하지는 않을까요?
- 에스겔이 그 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곳에 '이스라엘의 칙십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겔 8:11). 우상을 위해 향로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피운 향로의 연기가 그 방을 가득

[겔 8: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겔 8:10] 내가 들어가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겔 8: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칙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채웠을 것입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찬 '담배방'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을 위해 향로 불을 지폈을까요? 저들이 지펴야 할 향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 성전을 더럽히는 장로들

- 1)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그 곳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채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 2)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겔 8:1-12). 여기에 사용된 말 중에 '각각'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이라는 말은 칠십인 각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각자 사용하는 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은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과 함께 하는 방이었습니다.

[겔 8: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만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을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요 8:44). 저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저들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때 우리 입에서도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 되었음이라

라. 더욱 가증한 죄악들

1) 주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가증스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왕들이 세운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숙소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비밀의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보다 더욱 가증스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 이번에 보여주신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14절). '애곡' <바카>은 단순히 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와 함께 애절하게 우는 눈물입니다. 도대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저들은 '담무스'(Tammuz)를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 '담무스'란 식물의 성장과 결실을 위해 숭배되어온 우상입니다. 담무스의 누이 '이쉬타르'(Ishtar)에 의해 지하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지상의 식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풍성한 결실을 보장한다는 미신을 믿고서 바벨론 사람

[겔 8:1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복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들이 담무스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 우상숭배가 이슬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담무스'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보다 더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의 신이었지만 '담무스' 우상은 바벨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사대주의에 의해 비롯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것이면 뭐든지 좋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것이라면 뭐든지 좋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 여인들이 어디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북문'입니다. 북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겔 8:4).

- 2)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북쪽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제사장들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겔 8:4]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 여인들이 울려면 하나님께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려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인들이 이방 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했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있습니까? 저들이 제사장입니까? 왜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강대상에 올라 가면 좋습니까? 성도가 목사님 의자에 앉으면 좋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까? 왜 질서없이 행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겁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들이 세운 '질투의 우상'도 끔찍한데 우상과 각종 가증한 것들을 쌓아놓고 즐기는 제사장들의 추악한 모습과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우상을 위해 향불을 지피는 장로들의 모습에 이어 이방나라 우상을 위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모습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가증한 모습을 보

여주신다니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3) 이번에는 주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 가셨습니다. 안뜰에서는 제사의식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양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겔 8:16).

- 25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되는 나이가 25세입니다(민 8:24).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장 시작 나이는 30세입니다. 하지만 25세부터 시작하여 30세에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20세로 그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대상 23:24). 25세부터 제사장의 의무가 시작된다면 25명의 제사장은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건한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 그런데 그들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겔 8: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악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와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민 8:24]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 할것ियो

[대상 23:24] 이는 다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 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을 등진 것입니다. 낮을 동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지성소의 반대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서쪽을 향해야 합니다.

5) 저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 주님은 에스겔에게 저들이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겔 8:17).
- 나뭇가지를 코 위에 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죽은 나무입니다. 나뭇가지는 불을 태우는 원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6)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겔 8:18).

- 큰 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

[겔 8: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겔 8: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갇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나눔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두손씩씩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찬 교회를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가정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다

- 1)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각기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셨습니다(겔 9:1).
 -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저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 위해 성읍의 관할자를 진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 그랬더니 여섯 사람이 나왔습니다(겔

[겔 9:1]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오게 하라 하시더라

9:2).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중의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있었으며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여섯 사람'은 악한 자를 죽이는데 사용된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주를 내리게 했던 천사는 두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천사는 일곱명이었습니다(겔 16:1).

2) 그런데 그들 중의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명하셨습니다(겔 9:4).

-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 여기서 언급된 '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겔 9:2]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겔 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 하나님의 표는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짐승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과 함께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계 20:10).

3) 하나님은 파괴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겔 9:6).

-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과 온역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짐을 당했을 때에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계 2차대전 때에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 이러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겔 9: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파괴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표를 받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렘 15:11).

[렘 15: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바. 진노의 솥불을 가진 천사들

- 1) 에스겔은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남보석과 같았습니다(겔 10:1).
 - '남보석'<삽피르>는 '사파이어'입니다. 이 남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도 박혀 있는 보석입니다. 남보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되었습니다.
 - 에스겔 1장에서도 남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에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겔 1:26).
 - 이스라엘 칠십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

[겔 10:1]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겔 1: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계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는 '남보석'(청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출 24:10).

- 남보석 보좌에 좌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겔 10:2).

2) '베옷 입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구절은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숯불을 움켜쥐고서 성읍 위에 흘었는데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읍 위에 숯불을 흘으는 작업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심판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에스겔서 9장에서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그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겔 9:3-4). 이러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우리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의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 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겔 10:2] 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흘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겔 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겔 9: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명령을 순종하여 숯불을 이스라엘 성읍에 흘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성읍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3)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룹들 사이에서' 가져왔습니다.

-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꺼내 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룹의 바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로 가득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불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불은 인간을 죽이고 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인간을 살리는 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고 인간의 불로 하나님의 불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불을 내려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셨습니다(레 10:1-2).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 그룹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 1)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겔 10:3-4).
- 2)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입니다.
 -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왕상 8:10-11).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출 40:34-35).
 -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니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

[겔 10:3]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겔 10:4] 여호와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하며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광을 더욱 충만하게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입니다(겔 1:24).

아. 그룹은 곧 생물이다

- 1) 에스겔은 1장에서 보았던 생물을 다시금 보았습니다(겔 10:15). '그룹'은 곧 '생물'입니다. 생물이 그룹입니다. 에스겔은 생물이 그룹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겔 10:20).
- 2)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생물과 10장에서 본 생물의 얼굴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다만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10장에서는 그룹의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겔 1:10,14).
- 3) 에스겔 1장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매우 복잡하고 혼선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지만 이들은 함께 나아갑니다. 몸을 돌리지도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겔 10:15]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 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겔 10:20] 그것은 내가 그 발 강 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나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0:14]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않았습니다. 그룹이 움직이는데로 따라 이동했습니다(겔 10:11).

- 4)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처럼 함께 일을 합니다. 서로 각기 다른 임무가 있지만 혼선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질서적이면서도 협력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질서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욕합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원수를 맺습니다. 전혀 천사같지 않습니다.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겔 10:11]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나아가며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다

- 1) 하나님은 에스겔을 끌어올려 성전 동문쪽으로 옮기셨습니다(겔 11:1).
- 2) 에스겔은 그곳에서 백성의 고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백성의 고관들은 총 25명이었습니다.

[겔 11:1] 그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 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총 24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어쩌면 고관들은 각 지역의 고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여있는 백성의 고관들은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겔 11:2).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의를 품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저들이 태만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겔 11:3).
- 백성의 고관들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예루살렘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말로 백성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성읍은 각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3) 하지만 하나님은 고관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겔 11:4).

-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언으로 사람을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제

[겔 11:2]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겔 11:3]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겔 1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대로 듣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고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 당할 것임을 확증시키기 위해 '블라다'를 죽이셨습니다.

- 블라다는 백성의 고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에스겔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겔 11:13).

[겔 11:13]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앞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곧 부어짐을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로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회개없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대하 7:14).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차. 예루살렘의 멸망의 성취

- 1)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뤄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흠으셨습니다(겔 11:16).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에 흠으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겔 11:15). 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찌 자녀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 11: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흠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겔 11:15]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했습니다. 백성의 고관들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은 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3)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겔 11:17).

- 실제로 이 일은 이뤄졌습니다. 2천년동안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 1948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가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겔 11: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흠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카. 고국에서 할 일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의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겔 11:18).

[겔 11: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자라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멀리하길 원하셨습니다.

-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란 이스라엘 백성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숭배한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솔하게 외세의 침입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고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만일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행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육신으로 살게 하셨습니다(겔 11:19).

- 이 구절은 영혼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마음' <레브>이 언급된 것은 '영' <르아흐>이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육' <

[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바사르>입니다. '육'은 영과 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은 혼이 열려야 비로소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이 우선이요 그 다음은 마음이요 마지막으로 육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과 혼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이 먼저요 육이 다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이 육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은 교양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있는 사람입니다. 있어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해서 모두 영혼육 순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

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의 세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영혼육의 순서로 살아갑니다. 영이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을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혼영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자신의 뜻이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겉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딤후 3:5).

[딤후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4. 네번째 환상

가. 마른뼈가 살아나다

- 1)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 습니다(겔 37:1).
- 2) '골짜기'<비크아>는 '골짜기' 또는 '들'이라 는 말입니다. 이곳은 에스겔이 처음 하나 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라 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계시라는 말입니 다. 에스겔이 매우 의미심장한 계시를 받 을 때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대부분의 경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주로 그렇 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는 이처럼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더욱 심오 한 환상을 통해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십 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도 환상을 통해 세계 정세를 파악할 수 있 었습니다. 바울도 환상을 통해 선교사역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 시고 그의 영으로 나 를 데리고 가서 골짜 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4)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히 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겔 37:3).

-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 우리 삶에도 이러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그저 순종하며 받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겔 37:4).

- '대언' <나바>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예언은 대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 대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뜻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역자의 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예언'이 '영감예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영감예언'에는 사역자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묻어 있지만 '대언예언'에는 사역자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하나님은 모든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뼈에 생기가 들어가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겔 37:6).

-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생기' <루아흐>

[겔 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는 '영'(spirit)입니다.

-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와는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창 2:7).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때의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 이 <네샤마> 역시 <루아흐>와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루아흐>는 100% 영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네샤마>는 인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 결국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창세기 2장에서의 '생기'와 뼈들로 사람을 만들었던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다소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
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이 생령이 되니라

나. 마른뼈가 군대가 되다

- 1)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주십니다. <네샤마>를 불어 넣으실 때는 '

생령'<네페쉬>가 되게 하셨지만 <루아흐>를 불어 넣으실 때는 '군대'<하일>이 되게 하셨습니다(겔 37:10).

- '군대'<하일>이라는 말은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생령'<네페쉬>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Living being)가 되게 하셨지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군대'<하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사마>가 아닌 <루아흐>를 불어 넣으셔서 마른 뼈들로 하여금 능력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와 재산을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군대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 2)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계속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아담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강인한 아담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3) 이스라엘은 죄가 많은 민족입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나악하고 악한 민족입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군대처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당신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 어쩌면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강한 군대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다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와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겔 37:17).
-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겔 37:17]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2)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겔 37:22).

- 이 약속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며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 포로 귀환 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함께 귀환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 2:42).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도 속하면서도 동시에 북이스라엘에도 속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귀환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고 봐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겔 37:26).

- '화평의 언약<베리트 샬롬>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롬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 2: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구명이었더라

[겔 37: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5:1).

4)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겔 37:23).

-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요 14:6).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겔 37: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 다섯번째 환상

가.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셨다

- 1)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천국의 성전을 보여주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성경 그 어디에도 '에스겔이 본 성전'이 '천국의 성전'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천국의 성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 48장에 가면 천국에서의 땅의 배분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천국의 성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2) 에스겔서 40장은 이전의 기록(1-39장)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 이 때는 기원전 573년입니다. 이 때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기원전 593년)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3)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겔 40:2).

-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영적인 산입니다.
- 이 시온산은 다윗 성을 지칭했으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겔 40:2] 하나님의 이 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같은 것이 있더라

은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겔 40:3).

4) 늦같이 빛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사도요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주님을 보았습니다(계 1:15).

- 왜 주님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 '삼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5) 주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겔 40:4).

- 주님은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 중이었으나 실제 삶과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스

[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있더니

[계 1:15]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 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들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 어다 하더라

겔이 환상을 잘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생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처럼 매우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같아서 그가 본 환상 내용대로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생각했는데 그의 환상 또한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 이처럼 환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환상을 에스겔처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에스겔처럼 선명하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장

/

이스라엘의 죄악

제 3 장 이스라엘의 죄악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하나님의 진노

가.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겔 12:2).
 - '반역'<메리>은 문자 그대로 '반역', '반

[겔 12:2]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반역의 행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반역이 된 것입니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행위로 나타나도록 명하셨습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했습니다(겔 12:3).

3) 그리고 성벽을 뚫고 그들을 따라 옮겨가라고 명하셨습니다(겔 12:5).

-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땅을 보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겔 12:6).
-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행하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습니다(겔 12:9).
- 에스겔은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

[겔 12:3]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겔 12:5]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되

[겔 12:6]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겔 12:9]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다(겔 12:10).

4) 여기서 언급된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에스겔은 그가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겔 12:12).

-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뿔뿔히 당하여 앞을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두 눈이 뿔뿔히 당한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의 몇 사람을 남겨 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남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자백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겔 12:16).

나.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가?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겔 12:13).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떨면

[겔 12:10]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 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겔 12:12]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겔 12:16]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겔 12:13] 내가 또 내 그 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야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임을 증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 때문이었습니다(겔 12:19).

2)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관계에 있는 조직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들은 이름의 의미답게 이스라엘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유행되고 있는 속담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속담은 '날이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하는 속담입니다(겔 12:22). 이 속담은 선지자의 예언을 비꼬는 말입니다.
-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비꼬는 투로 말하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담이 그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겔 12:23).

[겔 12: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해하게 됨이라

[겔 12:22]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겔 12:2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목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속히 바벨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겔 12:28).

4)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지라도 반드시 이뤄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뤄집니다.

다. 재앙의 소문

1)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겔 21:2).

- '소리내어' <나타프>라는 단어는 '물방울이 떨어지다', '뚝뚝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겔 12:28]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겔 21: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게예언하라

입니다. 이 단어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짐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선명한 소리로 또박또박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듣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집에서 빠져 나왔습니다(겔 21: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빼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까요? 혹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있지는 않습니까?
-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죽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

[겔 21:3] 이스라엘 땅에
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
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
게서 끊을지라

일 때까지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입니다(겔 21:5).

3)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겔 21:6).

- '끊어지듯' <쉬브론>이라는 말은 '산산이 부서짐', '분쇄', '파괴'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리가 산산이 부서진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다' <아나흐>는 말은 '신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말합니다.

4)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슬퍼하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와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물을 때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하라 명하셨습니다(겔 21:7).

5) 하나님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손이 약하여지고 영이 쇠하여져서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음'과 '손, 무릎'과 '영'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입니다. 인간은 '영,

[겔 21:5]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 하리라 하셨다 하라

[겔 21:6]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겔 21:7]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들은 백성이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 왜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소문은 귀로 듣습니다. 귀는 육적인 것이지만 귀에 전달되는 재앙의 소문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린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결국 귀로 전해들은 재앙의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녹이다'<마사스>라는 말은 '녹다'라는 뜻 외에도 '사라지다', '약해지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번영과 축복이 가득찬 환경입니다. 잘 살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녹아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 당신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리는 소리를 막으십시오. 재앙의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잘 안 될 거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이간질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시오. 귀를 막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마음이 녹지 않을 것입니다.

- 6)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졌을 때 두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손'이 약해졌습니다. 손이 약해졌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면 손을 멈추게 됩니다. 열심히 설것이 하는 주부도 마음이 약해질 때 설것이를 하지 않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때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누구나 게을러집니다. 손이 멈추게 됩니다.

-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세번째 반응은 각 영이 쇠하여 지는 것입니다. '쇠하다' <카하>라는 말은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해지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밝아야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영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촛불이 곧 꺼질려고 할 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이 희미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밝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밝아집니
다.

-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나는 마지
막 네번째 단계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는 현상은 병든 상태를 말합니
다. 실제로 병든 사람은 무릎부터 아픔
니다. 영과 혼과 육에 문제가 있는 사
람은 무릎부터 약해집니다.
- 대부분의 질병은 재앙의 소문 때문에
생깁니다. 사고로 인해 생기는 질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재앙의
소문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는 재앙의 소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7) '재앙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좋
은 소식입니다.

- '소문' <세무야>이라는 단어는 '소식', '
소문', '보고', '메시지'입니다. 좋지 못
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도 재앙의
소문입니다.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안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타락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

락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곧 전쟁이 터질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모든 소리가 재앙의 소문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의 소문'을 듣고 영혼육의 상처를 받고 질병걸린 사람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영혼육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항상 복된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달리셨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산 자의 희망이 되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거할거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라. 극에 달한 하나님의 진노

1)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

나님의 심판의 칼은 칼집에서 뽑혔으며 결국 이 칼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히 죽일 것입니다(겔 21:12).

2)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고관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까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겔 21:13).

- '시험하다' <바한>라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질 것을 입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시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뛰어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 "...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다면 어

[겔 21:12]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겔 21:13]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다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찌할까..."(13절 중). '규'라는 말은 막 대기를 말합니다. '업신여기는 규'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 이것은 유다 왕국이 교만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교만해졌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로 멸망 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겔 21:14).
- 한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이나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칼을 휘두르셔도 지리멸절할 것인데 두세 번씩이나 칼을 휘두르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실로 참혹스럽고 끔찍한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4) 하나님께서 칼을 모으셨습니다(겔 21:16).

[겔 21:14]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뻑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칼이로다

[겔 21:16]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대로 가라

- 어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칼을 모으실까요? 선민으로 택한 민족을 쓸어 없애려고 어찌하여 칼을 모으시는 것일까요?
-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겔 21:17)

[겔 21:17]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마. 휘둘러진 하나님의 칼

- 1) 결국 하나님의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쥐어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칼을 받아 마음껏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 2)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길은 두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곧장 북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동편쪽으로 우회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겔 21:20).
 - 바벨론 왕은 갈렛길에서 점을 쳤습니다. 그는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의 간의 상태를 보고서 어느 길로 공격할 것인지 판단

[겔 21:20] 칼이 암몬 족속의 랍비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에 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했습니다(겔 21:21).

-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전쟁할 때 화살들을 흔들어서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희생제물을 죽여 간을 꺼내어 간 색깔을 보고서 공격할 때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우상숭배를 행하는 바벨론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의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 하나님의 심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리필처럼 계속해서 형벌이 가해집니다(겔 21:27).

[겔 21:21] 바벨론 왕이 갈랫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서

[겔 21:27] 내가 얄드르뜨리고 얄드르뜨리고 얄드르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 맞은 데를 또 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 뜨리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길 때까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스라엘에 임하였는지 그 이유를 당신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에 이스라엘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2. 찌꺼기로 전략한 이스라엘

가.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한번 이스라엘을 심판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겔 22:2).
- 2)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행

[겔 22:2]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크면 클수록 가증스러운 일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가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 혹 당신은 스스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증스러운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겔 22:3).
-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겔 22:7).
-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 성물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겔 22:3]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겔 22:7]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겔 22:8).

-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겔 22:9).
-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 위에서 제물을 먹었다는 말은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 뇌물을 받았습니다(겔 22:12).
- 변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변돈' <네 셰크>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 <타르비트>는 원금에다 더한 이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변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25:36-37, 신 23:19-20).
-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3) 음행에 대한 내용 중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음행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겔 22:10).

[겔 22:8]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겔 22:9]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겔 22:12]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레 25:36]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 25:37]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신 28:19]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 28:20] 네가 악을 행

-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생리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사항입니다(레 18:19, 레 20:18).
- 이웃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겔 22:11).
- 며느리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 형제 자매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나. 찌꺼기로 전락한 이스라엘

- 1)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겔 22:18).
 - 우리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같은 존재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있어서 찌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찌꺼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겔 22:10]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레 18:19]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 20:18]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 22:11]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하지만 저들은 가증한 일을 일삼는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정신을 팔았습니다.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취미 삼았습니다.

-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꺼기'라고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찌꺼기를 한데 모으십니다(겔 22:19).
- 하나님께서 한데 모은 찌꺼기를 풀무 속에 넣어 녹이십니다(겔 22:20).
- 많이 뜨거울 것입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뜨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뜨겁습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풀무에 던져진 찌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겔 22:18]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라

[겔 22:19]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겔 22:20]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다. 이스라엘을 찌꺼기로 만든 주범들

- 1)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가 된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첫번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는 사

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행위를 반역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겔 22:25).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거짓되어 예언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 두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 규칙과 제사장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겔 22:26). 마치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 세번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겔 22:27). '이리' <제에브>는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육식 동물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백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을 잡아 먹는 이리가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한 구절

[겔 22:25]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겔 22: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겔 22:27]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미 3:11).

- 혹 당신은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역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혹 당신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도의 것을 빼앗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뜻에 맞추도록 성도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3. 저주받은 두 여인

가. 오홀라와 오홀리바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겔 23:2).
 -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겔 23:4).
 - 오홀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사마리아입니다. 오홀리바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의 자녀가 사마리아인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오홀리바의 자녀가 예루살렘인 것

겔 23:2]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겔 23:4]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은 남유다왕국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은 오홀라가 행음하여 앓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겔 23:5).
- 결국 오홀라는 행음으로 인해 우상으로 더럽힘을 당했습니다(겔 23:7).
- 결국 오홀라는 행음으로 인해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녀가 빼앗기며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겔 23:10).
- 그런데 오홀라의 동생 오홀리바는 그 형보다 더욱 간음을 행했습니다(겔 23:11).
-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람과 행음을 했습니다(겔 23:17).
- 오홀라와 오홀리바 모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외간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젊었을 때부터 행음을 저질렀습니다(겔 23:19).

[겔 23:5]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앓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겔 23:7 그가 앓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겔 23:10]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겔 23:11]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 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겔 23:17]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겔 23:19]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3) 이스라엘이 잘 하는 것은 행음입니다. 행음을 저지르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최고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게 그 능력이 바로 음행입니다.

- 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좇아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 우리는 저들처럼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세상의 품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 하나님께서 오홀리바에게 질투하셨습니다(겔 23:25).

- 오홀리바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연애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오홀리바의 코와 귀를 깎으셨습니다.
-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자녀를 빼앗고 집을 불살랐습니다. 오홀리바가

연애했던 바벨론에 의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 오홀리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최후는 아픔 뿐입니다.

[겔 23:25] 내가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꺾어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나. 심판받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1) 하나님은 에스겔더러 저들을 심판하라고 명하셨습니다(겔 23:36).

- 선지자는 마땅히 백성의 악행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은 영영 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겔 23:36]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2)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악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우상과 행음한 일입니다(겔 23:37).

- 또한 사람을 학대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들은 우상과 행음하여 낳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화제로 바쳤습니다.
- 어찌하여 자녀를 우상에게 바칠 수 있

[겔 23:37]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 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녀를 불 속에 던질 수 있습니까? 완전히 미쳤 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 마귀에게 사로잡혔 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3) 그런데 이러한 죄악 외에 또 다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행음한 후에 당일날 버젓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겔 23:39).

- 어찌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간음을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을 언제까지 저질러야 하는 겁니까?

4)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공포를 느

[겔 23:39]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끼게 하고 약탈을 당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겔 23:46).

- 저들이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음행의 형벌은 음행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에게 의해 일어납니다. 음행의 현장에 함께 뒹굴렀던 사람에게 의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죽임을 당합니다(겔 23:47).
-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녀도 죽게 될 것입니다. 재산도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남는 건 죄뿐입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ash)가 아니라 영원히 태워지지 않는 '죄'(sin)뿐입니다.

[겔 23:4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겔 23:47]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4.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가지

가. 이스라엘 산을 향한 축복의 선포

-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 앞서 35장에서는 '세일 산'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본 장 36장에서는 회복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였던 에돔과 주변 국가들을 향해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겔 36:3).

-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훼방하고 미워하며 조롱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겔 36:7).
- '내가 맹세하다' <아니 나샤티 에트 야 데>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계약을 할 때에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

[겔 36:3]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겔 36: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 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평생에 걸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창 12:3).

-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

- 1)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 그런데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 더러움

으로 가득차 있다면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겔 36:17).
 -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겔 36:18).
- 3)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의해 침략을 받아 각국에 흩어짐을 당하게 하였습니다(겔 36:19).
 -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 4)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란 조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겔 36:23).

[겔 36:17]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겔 36:18]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겔 36:19]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쳐더니

[겔 36:23] 여러 나라가 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5)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못난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빚을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아버지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못난 자녀의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못난 자녀입니다. 아주 심하게 못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못난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 오셨습니다.

-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스

라엘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가지

- 1) 하나님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원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결'이었습니다. 그 정결은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겔 36:25).
- 2)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해 맑은 물을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행위는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 만든 물을 뿌려 백성을 정결케 했습니다(민 19:9).
 - 이러한 정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민 19:9]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하여금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3)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번도 멍에를 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민 19:2).

-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한번도 세상 일에 가담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암송아지는 진영 바깥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민 19:3).
-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불로 태워졌는데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어 태웠습니다(민 19:6).
-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정결의식에 사용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 19:2]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 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민 19:3]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민 19:6]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4) 정결의식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더러움은 시체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민수기 19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잿물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왜 하나님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셨을까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생명은 천국의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 우리는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조차 모른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적으로도 죽어선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하면 영도 살고 혼도 살며 육도 삽니
다.

5) 하나님은 정결의식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
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겔 36:26). 이
미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
날 때부터 이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
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영
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창 2:7).

- '생령' <네사마>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
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과 혼으로
만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
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
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결의식을 통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셨을까
요? 그것은 정결의식을 통해 우리 안
에 있는 영의 실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우리
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이러한 정결의
식을 통해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
음을 줄 것이며

[창 2:7]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
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이 생령이 되니라

주신다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롬 12:2).

-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때에 황폐한 것이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겔 36:33).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새롭게 변화시켜 에덴동산같이 만드실 것입니다(겔 36:35).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겔 36:33]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겔 36: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4 장

/

에스겔 성전

제 4 장 에스겔 성전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에스겔 성전의 측량

가. 주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다

- 1) 에스겔서 40장은 이전의 기록(1-39장)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겔 40:1).
 -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는 기원전 573년입니다. 이 때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기원전 593년)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겔 40:1]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와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때입니다.

2)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겔 40:2).

-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영적인 산입니다.
- 이 시온산은 다윗 성을 지칭했으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3) 에스겔은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겔 40:3).

- 늦같이 빛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 사도요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주님을 보았습니다(계 1:15).

4) 왜 주님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셨습니다.
- '삼줄'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 '측량하는 장대'는 높이를 잴 때 사용됩니다.

5) 주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본 모든 것을

[겔 40:2] 하나님의 이 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같은 것이 있더라

[겔 40: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계 1:15] 그의 발은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겔 40:4).

6) 주님은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명하셨습니다(겔 40:4).

-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 이것은 환상 중이었으나 실제 삶과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스겔이 환상을 잘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생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처럼 매우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말세의 징조들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실제와 같아서 그가 본 환상 내용대로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

[겔 40: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 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들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여다 하더라

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니엘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생각했는데 그의 환상 또한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 이처럼 환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환상을 에스겔처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에스겔처럼 선명하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8) 예수님도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잘 들으셨고 환상도 잘 보셨습니다(요 5:19, 요 8:28, 요 12:49).

-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을 전했습니다.

나. 동쪽문에 대한 설명

1) 겔 40장 6-16절은 성전 바깥 뜰의 동쪽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 동쪽 문부터 설명이 시작되는 것은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성막 역시 동쪽에 문을 달았습니다(출 27:13-16).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 후에 내가 그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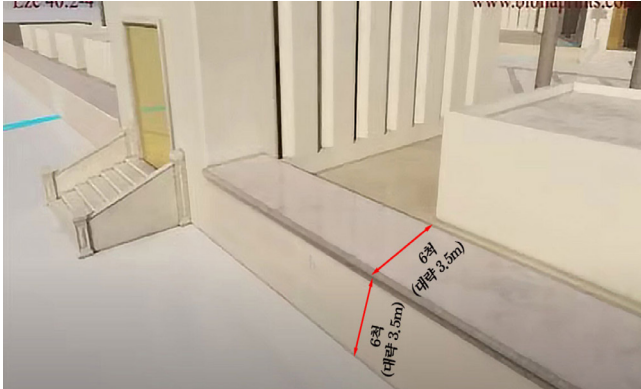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출 27:13]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쇠 규빗이 되리라

[출 27:14]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출 27:15]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

- 2) 주님께서 동쪽1 성벽을 측량했더니 그 두께와 높이가 모두 6규빗이었습니다(겔 40:5).



- '한 장대'는 왕실규빗으로 6규빗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장대가 여섯척이었습니다.

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 27:16] 돌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겔 40:5] 내가 본즉 집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왕실규빗

일반규빗보다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 왕실규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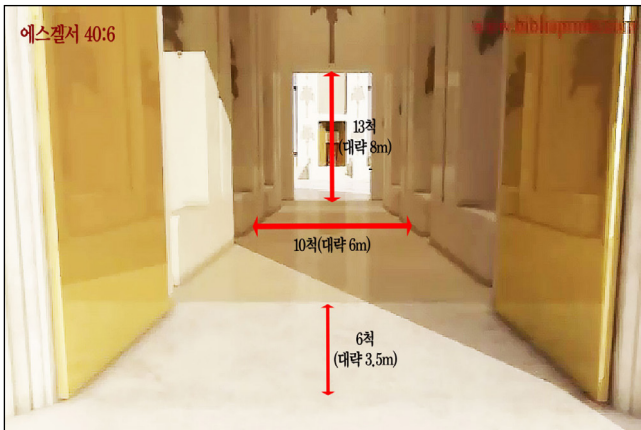
일반인이 사용하는 규빗

-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로서 대략 50cm 정도입니다.



-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것은 '규'

빗'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치수가 50cm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손바닥 너비를 더했으니 대략 60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손바닥 너비를 더한 장대는 왕실규빗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규빗보다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 왕실규빗입니다. 왕실규빗 크기로 여섯척 정도되는 장대의 길이는 대략 $6 \times 60\text{cm} = 3.6\text{m}$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담의 두께와 높이는 대략 3.5미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매우 높지만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성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에스겔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층계를 따

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 통로가 있었습니다(겔 40:6).

- 통로의 길이는 한 장대의 길이였습니다(대략 3.5미터 정도). 이것은 성벽 두께와 높이와 같은 길이였습니다.

4) 동쪽 문의 문간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의 길이와 넓이 또한 모두 한 장대 길이였습니다(겔 40:7).



- 문간의 문지기 방들이 오른쪽과 왼쪽 모두 세 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방들의 크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문의 현관도 한 장대였습니다(겔 40:8).
- 성전을 경비하는 레위인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겔 44:11).
- 바깥문(동쪽,북쪽,남쪽)과 안들문(동쪽,

[겔 40: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겔 40:7]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겔 40:8]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북쪽,남쪽)에 각각 6개의 방이 있습니다.

- 이처럼 동쪽 문에는 양쪽으로 방들이 세 개씩 만들어져 있는데 왼쪽 방끝과 오른쪽 방 끝은 모두 25규빗이었습니다(겔 40:13).

5) 동쪽 문과 연관된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한 장대(왕실규빗으로 6척)의 길이로 만들어 졌습니다(겔 40:8).

- 같은 길이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상징합니다.
- 거룩한 성은 장광고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계 21:16).
-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광고(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길이를 같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운 성품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6) 성전에는 방이 아주 많았습니다.

- 성전에 방이 많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방들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이 모두 기도하

[겔 40: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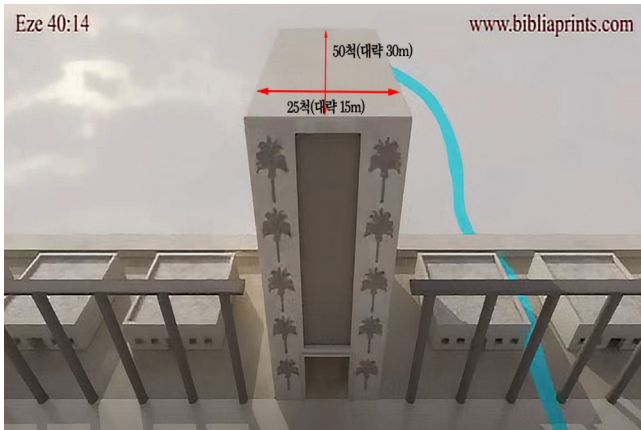
[겔 40:8]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는 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에서 세상의 정욕을 위한 일을 합니다. 참된 성도는 살고 있는 방을 기도의 방으로 삼을 것입니다(마 6:6).

7) 동쪽문의 건물은 가로가 25척이고(겔 40:13) 세로는 50척입니다(겔 40:15).

- 50척이 되는 이유는 바깥 문통이 6척이고 세 개의 문지기 방이 18척이고(하나에 6척씩) 두 개의 문지기 방과 방 사이의 벽이 10척이고(각 5척씩) 안문통이 6척이고 현관이 8척이고 문 설주가 2척이므로 전체 숫자를 계산하면 정확히 50척이 됩니다.



- 그 방들에는 모두 창이 달려 있습니다(겔 40:16).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겔 40: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겔 40:15]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스물다섯 척이며

[겔 40:16]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 이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반대로 그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4개의 겹으로 덮었습니다(출 26장). 세마포 양장과 염소털로 짠 양장과 숫양 가죽 덮개와 물개 가죽 덮개로 덮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떠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천국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 바깥뜰과 안뜰

1) 에스겔 성전에는 바깥 뜰과 안 뜰이 있습니다(겔 40:17).

2) 그곳에는 방이 30개나 있습니다. 동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안뜰 문간까지의 거리가 100규빗이었습니다(겔 40:19).

- 동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나 북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가 모두 100척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쪽문에서 안뜰까지의 거리도 100척으로 모두 같습니다(겔 4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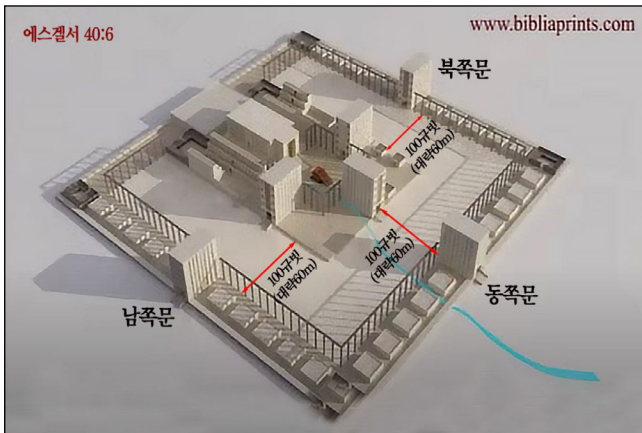
3) 동쪽문에 설치된 방들과 창들처럼 북쪽문과 남쪽문 모두 동일하게 제작되었습니다(겔 40:22).

[겔 40:17]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겔 40:19]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 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겔 40:27]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 척이더라

[겔 40:22]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모두 동일한 건물이 두개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규모도 같고 딸린 방과 같고 문 위에 새긴 종려나무 무늬까지 모두 같게 제작되었습니다.
- 이렇게 동일하게 제작된 이유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에스겔성전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 그런데 거룩한 성에는 모두 12개의 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계 21:12-14). 거룩한 성의 문이 12개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 에스겔 성전에는 세 개의 문이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과는 달리 거룩한 성에는 12개의 문이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것은 천국의 성전과 거룩한 성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 성전이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은 에스겔 성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뜰에는 바깥뜰에 배치된 각각의 문과 똑같은 형식의 문이 만들어져 있습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계 21: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니다(겔 4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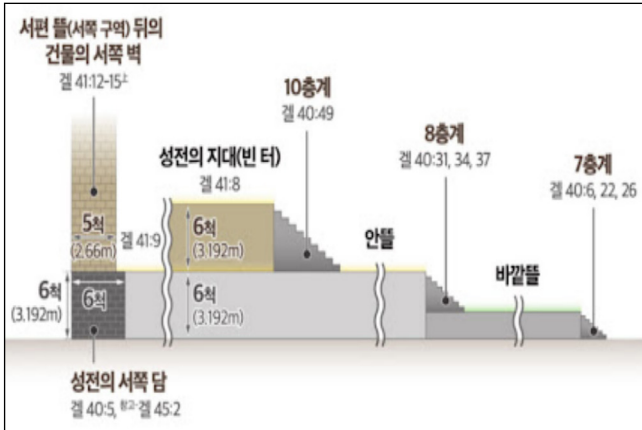
- 5) 바깥뜰보다는 안뜰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지는게 성전입니다. 모세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성전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성전도 바깥뜰과 안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바깥뜰의 문간과 안뜰의 문간이 모두 동일하게 제작된 것은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안뜰에 세워진 것은 바깥뜰에 세워진 것에 비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겔 40:31).
- 6)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층계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 바깥뜰 문간에는 7개의 층계가 만들어졌지만 안뜰 문간에는 8개의 층계가 만들어졌습니다.
 - 안뜰 층계가 바깥뜰 층계보다 한개가 더 높습니다. 바깥뜰 층계 7개와 안뜰 층계 8개를 더하면 총 15개 층계입니다.
 - 전승에 의하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사장들은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겔 40:29] 길이가 십척 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겔 40:31]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때 부른 찬양이 시편 120편-134편
이라고 합니다.

-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2. 에스겔 성전의 방

가. 안뜰문의 정결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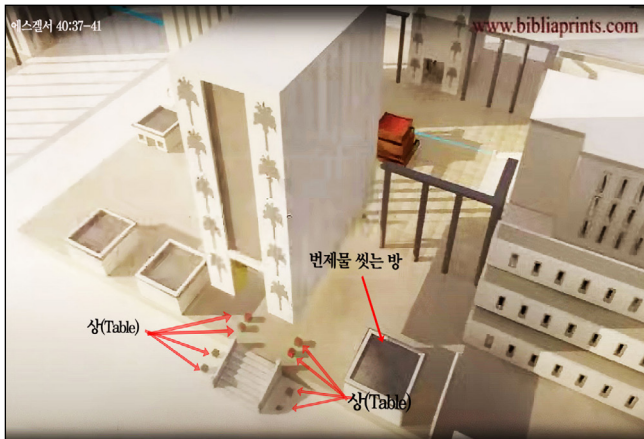
- 1) 안뜰 문간 옆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의 용도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습니다 (겔 40:38).

-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깨

[겔 40:38]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곳이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레 1:9).

-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야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출 30:19-21).



2)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제사를 위해 바쳐진 희생 제물을 깨끗이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방이 있을 뿐입니다.
- 모세 성막에는 물두멍이 한 개가 놓여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출 30: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출 30:20]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출 30:21]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져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자그마치 10개의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왕상 7:38).

3) 왜 제사장의 손을 씻는 물두멍이 없는 것 일까요?

- 그것은 천국에서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요 13:9-10).
- 바로 이런 이유로 에스겔 성전에는 물두멍이 필요치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희생 제물은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었기에 희생제물 씻는 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복문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들에도 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 하지만 이곳에 쓰인 '문'이라는 단어가

[왕상 7:38] 또 물두멍 열 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바를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요 13: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요 1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세아림>으로 복수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아마도 남문과 동문에 모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이는 어떤 문을 통과하든지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쉽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에스겔 성전에 총 8개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간 바깥에 4개가 있고 문간 안쪽에 4개가 놓여져 있습니다(겔 40:39-40).
- 이 8개의 상에서는 희생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6) 특이한 점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겔 40:39).

- 그 이유는 뭘까요?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 소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미 천국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제가 빠진 것입니다.

[겔 40: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한 것이며

[겔 40:40]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겔 40:39]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한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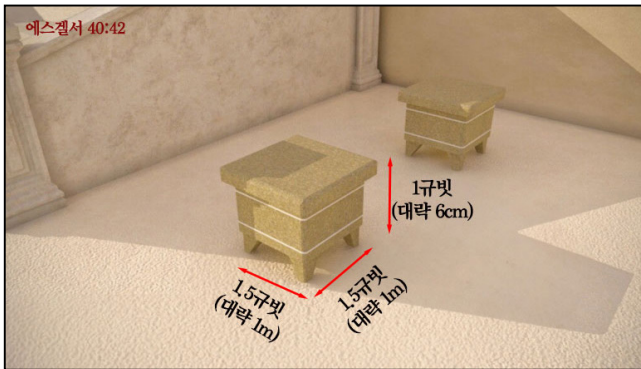
- 그럼 화목제는 왜 빠진 것일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 천국에 거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7)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만 언급한 이유를 살펴보면,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제사입니다.
- 천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중요한 성품입니다.
 - 속죄제는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 천국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도 죄입니다.
 - 예배를 등한시 하거나 소홀리 하는 것도 죄각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필요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며 이웃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 천국에서도 성물은 중요합니다. 성물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철저히

히 금지됩니다. 천국에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8) 그런데 문 곁에는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층계 양 쪽으로 두개씩 배치돼 있습니다 (겔 40:42).

- 그 길이는 가로 1.5규빗 x 세로 1.5규빗 x 높이 1규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이것들은 모두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상입니다.

[겔 40:42]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나. 찬양하는 자의 방

1)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있었습니다(겔 40:44).

-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있어

[겔 40:44]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제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없으면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사 43:21).

-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 찬양하는 자의 방은 서로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서로 바라보며 드려야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독창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가대의 합창만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 개역개정에는 동쪽문에 있는 '찬양하는 자의 방'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겔 40:44).

3) '찬양하는 자의 방'은 곧 '제사장의 방'입니다.

-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뜰 문간 옆의 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겔 40:45).
- 이들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겔 40:46).

4) 남쪽을 향한 방이나 북쪽을 향한 방 모두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이지만 남쪽을 향한 방에는

-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사용했고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과 제단을 지키는 일은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 제사장은 이처럼 성전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찬양도 해야만 했습니다.
- 오늘날 목회자는 교회도 지켜야 합니

[겔 40:44] 안쪽문의밖에는 안뜰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문 옆에 있고 그것들의 정면은 남쪽을 바라보더라. 하나는 정면이 북쪽을 바라보며 동문 옆에 있더라.(강제임스흠정역)

[겔 40:45]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겔 40:46]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다. 예배도 인도해야 합니다. 찬양도 불러야 합니다.

- 오늘날 교회도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는 자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수종드는 자도 필요합니다.
- 교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주차를 위한 주차위원도 필요하고 친교를 위해 친교위원도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위원도 필요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필요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필요합니다. 심방하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경조사를 주관하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3. 에스겔 성전 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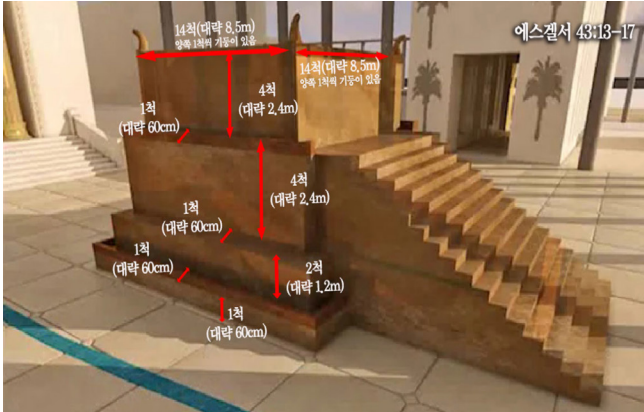
가. 에스겔 성전 안쪽 제단

- 1) 내전이 있는 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겔 40:47).

- 2) 그곳에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겔

[겔 40:47]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백 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43:13-17).



- 전체 4개의 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첫번째 단은 1규빗이고 두번째 단은 2규빗이고 세번째와 네번째 단은 4규빗입니다.
- 가장 위에 있는 단에는 4개의 뿔이 각 모퉁이에 있습니다.
- 가장 위의 단은 가로와 넓이가 14규빗입니다. 양쪽 기둥을 제하면 12규빗입니다.
- 제단의 층계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3) 에스겔의 제단은 모세 성막의 제단과 솔로몬의 제단처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출 27:1, 대하 4:1).

[겔 43:13]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겔 43:14]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겔 43:15] 그 번째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째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겔 43:16] 그 번째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겔 43:17]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 솔로몬 성전의 가로 세로 높이가 20 규빗 x 20규빗 x 10규빗 것에 반해 에스겔 성전은 대략 14왕실규빗 x 14왕실규빗 x 11척이니 솔로몬 성전이 더 큼니다.
- 중요한 것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모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 네모 반듯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나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도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형벌을 받을지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출 27:1]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대하 4:1]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나. 에스겔 성전 제사의식

1)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와 피를 뿌리는 규례를 알려 주셨습니다(겔 43:18-23).

- 제단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사독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겔 43:19).
-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오늘날에도 합당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수종을 들면 안 됩니다. 아무나 예배를 수종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다 인정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수종들 수 있습니다.
- 제단에는 보혈이 뿌려졌습니다(겔 43:20).

2) 제단에는 보혈이 뿌려졌습니다(겔 43:20).

- '뿔'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 문입니다. 그런 뿔에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말

[겔 43:1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느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겔 43:19]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 어 속죄제물을 삼되

[겔 43: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겔 43:21]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겔 43:22]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겔 43:23]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3) 하나님은 왜 제단에 피를 뿌리게 했을까요?

- 보혈은 곧 속죄입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엡 1:7).
-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케 됩니다(요일 1:7).

3) 피를 바른 후에 수송아지를 성소 밖에서 불살랐습니다(겔 43:21).

- '불사르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 모세 때에도 똑같이 행해졌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속죄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레 16:25). 가죽과 고기와 기타 내용물은 성막 바깥에서 태웠습니다(레 16:27).

4)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 위에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렸습니다(겔 43:24).

[겔 43:20]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겔 43:21]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지며

[레 16:25]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레 16: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 소금은 정결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부패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썩어선 안 될 것입니다.

5) 7일간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정결케 하고 봉헌했습니다(겔 43:26).

- 봉헌은 예배의 완료입니다.
- 봉헌이 없으면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6)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번제와 감사제로 드렸습니다(겔 43:27).

-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 제사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섬길 것을 서약하며 살아야 합니다(계 2:10).

7) 감사제는 소제와 화목제를 뜻합니다.

[겔 43:24]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가다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겔 43:26] 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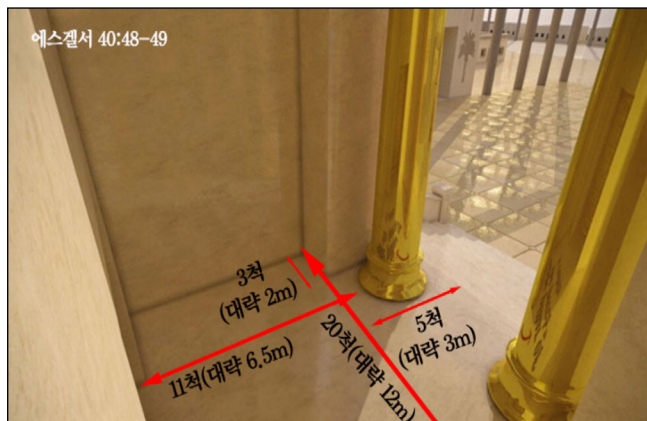
[겔 43:27]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 소제는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 우리 삶에는 소제와 화목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마 5:23-24).
-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받으실 것입니다.

[마 5: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마 5: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4. 에스겔 성전 내전



1) 성전 문의 좌우 벽을 측량했더니 벽의

넓이가 5규빗이고 두께는 3규빗이었습
니다(겔 40:48).

2) 현관의 넓이는 20규빗이고 길이는 11규
빗이었습니다.

- 성전 문 앞의 현관은 매우 거룩한 곳
입니다.
-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형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
금 함부로 돌진하지 못하게 막으셨
습니다.
- 개역성경은 '밀고 들어온다'는 표현
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역한글의 표
현이 더 좋을듯 합니다(출 19:21).

3) 성전문으로 올라가기 위해 마련된 층계
가 있는데 그 층계는 10개의 계단으로
이뤄졌습니다(겔 40:49).

- 이렇듯 바깥문에는 7개의 층계, 안뜰
에는 8개의 층계, 성막문에는 10개
의 층계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필
요한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
미입니다.
- 바깥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0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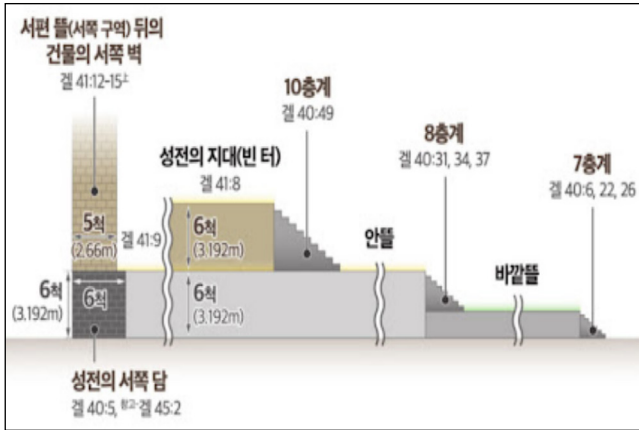
[겔 40:48] 그가나를 데
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
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
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
쪽도 세 척이며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려가서 백성을 경고하
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
을까하노라

[겔 40:49] 그 현관의 너
비는 스무 척이요 길
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
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
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
에 있더라

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안뜰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이라는 정성
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보
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보
다 더 많은 정성과 헌신이 필요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의 층계
가 10개로 이뤄진 것입니다.



4) 성전 문 벽을 측량하니 모두 6규빗이나
되었습니다(겔 41:1).

- 이는 바깥문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의 두께와 같은 것입니다.

5)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면 통로가 나오
는데 그 넓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겔

[겔 41: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
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
께가 그와 같으며

41:2).

- 문 통로 좌우 벽의 넓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 통로를 따라 성소로 들어갔더니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고 넓이는 20규빗이었습니다.

6) 주님께서 지성소의 길이를 측량하셨는데 길이와 넓이가 모두 20규빗이었습니다(겔 41:4).

- 성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 같았습니다.
- 모든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는 정육면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 성막의 지성소는 장광고 모두 10규빗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였습니다(출 26:15-16).
- 솔로몬성전의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성막의 지성소보다 2배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왕상 6:20).
- 거룩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 역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계 21:16).
- 이처럼 모든 성전의 지성소가 장광

[겔 41: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겔 41: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하고

[출 26:15]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 26:16]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반으로하고

[왕상 6:20]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계 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고가 같은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에스겔 성전의 내전에 있는 방

1) 내전을 둘러싸고서 90개의 방이 있습니다(겔 41:5).

- 각 층마다 30개이니 전체 합치면 90개의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겔 41:6).
- 성전 동편을 제외한 나머지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두루 돌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방의 크기는 4규빗(대략 2.2미터)정도였습니다.
- 그렇게 큰 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방을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는 이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 방이 크면 여러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세상의 물건이

[겔 41:5]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겔 41:6] 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작으면 아주 필수적인 물건만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으로 아주 적절할 것입니다.

- 이 골방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하는 숙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들은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나 기타 성물 보관용 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방들이 필요합니다.

2)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왕상 6:6).

- 그런데 각 층마다 점점 벽이 좁아집니다.
- 이는 성소와 지성소와 맞닿는 벽면은 그대로 똑같으면서 다만 바깥쪽 모습에서 각 층마다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게 제작되었습니다.
- 솔로몬성전의 경우, 1층은 5규빗이고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러한 모양새는 에스겔 성전과 똑같습니다. 1층의 벽은 3층의 벽보다 2규빗이나 더 두꺼웠습니다. 2층

[왕상 6:6]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과 3층으로 올라갈수록 1규빗씩 벽 두께는 얇아졌으며 방의 넓이는 넓어졌습니다(겔 41:5-7).

- 성전 벽이 6척이고 맨 1층의 방의 넓이가 4척이니까(겔 41:5) 기초부 6 규빗 → 1층 레벨에서 1 규빗 움푹 (5 규빗 두께) → 2층에서 추가 1 규빗 움푹 (4 규빗 두께) → 3층에서 추가 1 규빗 움푹 (3 규빗 두께). 이는 솔로몬 성전(열왕기상 6:6)의 설계와 유사하며, 안정성을 위한 '테라스(terrace)' 효과입니다.
- 측면 방 너비 증가: 기본 4 규빗(1층 투영 너비)이 벽의 움푹으로 인해 상층에서 1 규빗씩 추가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상층 방은 더 넓은 레지에 기대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 1층: 4 규빗 (벽 두께 5 규빗 기준, 기본 투영). 2층: 5 규빗 (벽 추가 움푹 1 규빗으로 인한 확장). 3층: 6 규빗 (추가 움푹 누적으로 최대 확장).

3)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 모두 1층과 2층과 3층을 나선모양의 층계로 오르도록 제작되었습니다(겔 41:7, 왕상 6:8).

- 올라갈수록 방이 더 넓어지도록 제

[겔 41:5] 전의 벽을 쳐라 하니 두께가 육 척이며 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사 척이며

[겔 41:6] 골방은 삼 층 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삼십이라 그 삼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 하였으며

[겔 41:7]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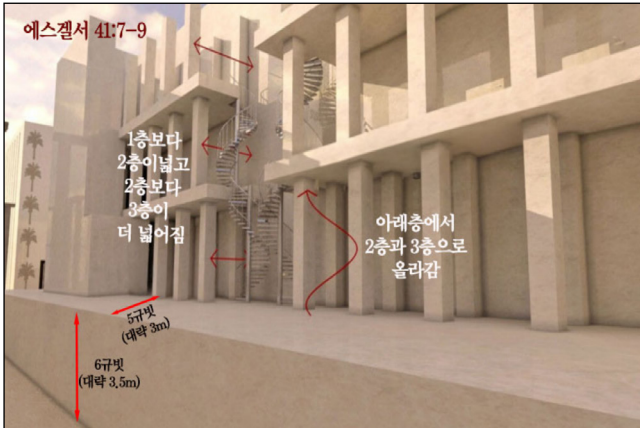
[겔 41:7]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왕상 6:8]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

작한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강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 1층에 거한 사람보다는 2층에 거한 사람의 영광이 크고 2층에 거한 사람보다는 3층에 거한 사람의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다는 사실입니다.

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

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골방은 성전에 마련된 골방이 아닐까 싶습니다(마 6:6).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서쪽에 구별된 건물

1) 에스겔 성전에는 특이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쪽 뜰 뒤에 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겔 41:12).

[겔 41:12]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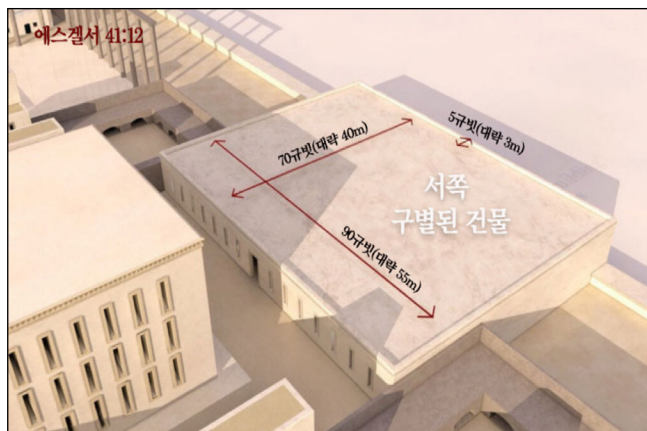
- 이 건축물이 무엇에 쓰여지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 어떤 성경학자는 쓰레기나 오물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생각인듯 싶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는 곳을 넓이 60미터 x 길이 60미터나 되는 건물을 사용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 아마도 이 건물은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 이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요 14:2).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 서쪽의 건물에 대한 길이도 똑같이 100
규빗입니다.(겔 41:14).

- 서쪽 성전 뜰 20척(41장 10절) + 서
쪽 건물의 동쪽 벽 5척(41장 12절)
+ 서쪽 건물 70척(41장 12절) + 서
쪽 건물의 서쪽 벽 5척(41장 12절)
=100척
- 이것은 성전의 길이와 같습니다.

[겔 41: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
도 그러하며



3) 성전의 전체 길이는 100규빗이었습니다
(겔 41:13).

- 현관 벽 5척(40장 48절) + 현관 12척
(40장 49절) + 성소의 문벽 6척(41
장 1절) + 성소 40척(41장 2절) + 내
전 문 통로벽 2척(41장 3절) + 지성

[겔 41:13]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
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
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
이는 백척이요

5) 동쪽을 향한 뜰의 넓이도 100규빗입니다(겔 41:14).

6) 뒤뜰에 있는 서쪽 건물을 측량했더니 그것역시 100규빗입니다(겔 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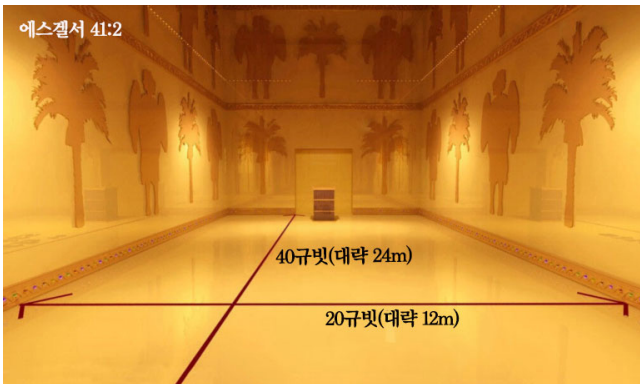
- 서쪽 건물의 벽 5척(41장 12절) + 서쪽 건물의 동서거리 90척(41장 12절) + 서쪽 건물의 벽 5척(41장 12절) = 100척.

[겔 41:14]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겔 41:15] 그가 뒤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척이더라...

5. 성소와 지성소 내부장식

가. 성소와 지성소 내부장식



1) 내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겔 41:18).

-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것과 흡사합니다(왕상 6:29).

2) 그룹의 얼굴은 두개의 얼굴로 나뉘어 있습니다.



-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사자의 얼굴로 새겨졌습니다(겔 41:19).
- 이것은 에스겔이 처음에 보았던 네 모습을 가진 그룹의 형상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룹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사람과 사자의 형상만 있습니다.
-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임

[겔 41:18]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왕상 6:29]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겔 41:19]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다 그리하여

니다.

- 하나님은 참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참경배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참경배자가 나옵니다(요 4:23).

[요 4: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3)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어린 사자'와 같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하게 양육하실 것입니다.
- 그래서 사자처럼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고전 1:27).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4) 이 두 얼굴이 모두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 참경배자에게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 어린 사자와 같은 자에게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겔 41:21]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는 양식은 이러하니

5)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지게 만들어졌습니다(겔 41:21).



- 솔로몬 성전의 문기둥도 네모지게 만들어졌습니다(왕상 7:5).
- 네모지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 네모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 하나님의 임재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존재하며 온 우주에 가득차 있습니다.

6) 성소의 맨 끝자락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겔 41:22).

- 이것은 분향단과 의미가 같은 제단입니다.
-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소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제단입니다.
- 길이가 2규빗(1.2미터)이며 높이가 3

[왕상 7: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겔 41: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규빗(1.8미터)입니다. 분향단의 경우와 같다고 볼 때 넓이 또한 2규빗 일 것입니다.

- 분향단의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다 높고 영적인 기도인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있는 나무제단 역시 영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나무 제단은 '여호와와 앞의 상'이라고 했습니다(겔 41:22).

- 특별히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모세성막의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솔로몬성전은 백향

[겔 41:22]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출 30:1, 왕
상 6:20).

- '여호와 앞의 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께서 백성들을 위해 차려놓은 영적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는 진설병이 '양식되는 주님의 얼
굴'이라는 의미인 것과 같습니다.
- 진설병은 '얼굴떡'입니다. '진설'<파님
>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설병은 얼굴떡입니다.
-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누구
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생명의 양
식을 얻게됩니다(요 6:51).

8) '여호와 앞의 상'은 '진설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성소에 거하는 자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 성소에 거하기 위해서는 참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 세상을 멀리하고 성전에 나와야 합니
다. 바깥뜰의 층계를 올라야 합니다.
- 바깥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뜰의
층계를 올라야합니다. 안뜰문을 통
과해야 합니다. 성전 뜰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뜰에는 제단이 놓여져

[출 30: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
각목으로만들되

[왕상 6:20]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 규빗
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
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
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
더라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
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
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
니라

있습니다.

- 이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 성전 통로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제단에서 하나님의 보다 깊은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때 비로소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9) 성전문에는 모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겔 41:23).

- 첫번째 문은 성전의 현관문입니다. 두번째 문은 성소문입니다. 세번째 문은 지성소문입니다.
- 이 문들은 모두 두 짝으로 된 여닫이 문입니다(겔 41:24).
- '접다' <사바브>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회전문처럼 된 것입니다.
- 왜 하나님은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을 회전문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겔 41:23] 내전과 외전에 각기문이있는데

[겔 41:24] 문마다 각기 두문짝 곧 접는 두문짝이 있어 이문에 두짝이 요저문에 두짝이며

는 그만큼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회전문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모세의 성막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년에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0)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예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가르셨습니다.
-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마 27:51).
-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회전문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 이제는 그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히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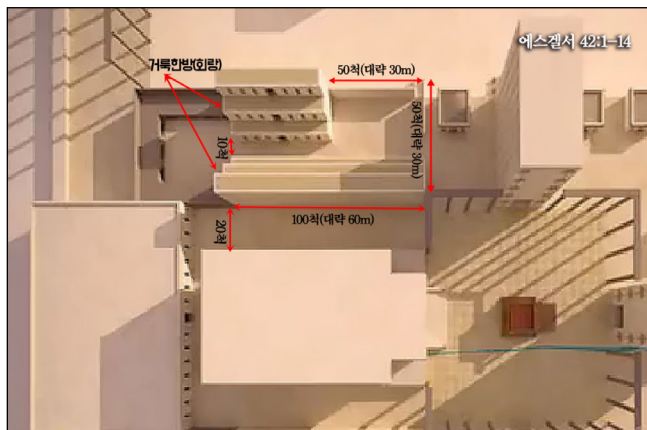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 즐거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6.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방

가. 거룩한 방

- 1)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거룩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겔 42:1).



[겔 42:1]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 '뜰<기즈라>라는 단어가 '따로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과는 구별하여 따로 떨어진 장소에 세워진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의 문은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한 건물의 문은 북쪽 건물을 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그 두 건물 중 하나는 길이가 100규빗인 반면에 보다 북쪽에 세워진 건물은 50규빗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두 건물을 합하여 넓이가 50규빗입니다(겔 42:2).
- 각 건물은 '회랑'형식으로 건축되었는데 '회랑'은 뒷마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발코니입니다. 두 건물에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 건물은 그 발코니가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건물의 발코니는 바깥뜰과 마주 대하게 만들어졌습니다(겔 42:3).

2) 각 층마다 회랑(발코니)이 있어서 삼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겔 42:5).

-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데 그 통로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넓이는 10규빗입니다(겔 42:4).
- 성전과 가까이 붙어있는 거룩한 방은 길이가 10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인 건물로 만들어졌는데 이에 반해 북쪽으로 세워진 또 다른 거룩한 방

[겔 42:2]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 척이요 너비는 십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겔 42:3] 그 방 삼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 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막혀 갇힌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겔 42:5]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좁아짐이라

[겔 42:4]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은 길이가 5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입니다(겔 42:7-8).

-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쪽에 세워진 거룩한 방은 담벼락에서 50규빗을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공간은 '거룩한 방'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겔 42:9).

3) 거룩한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겔 42:13).

- 거룩한 방은 성전의 북쪽과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겔 42:10).
- 거룩한 방은 두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의 북쪽 맞은편과 남쪽 맞은편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4) 이 방들은 세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첫째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됩니다(겔 42:13).
- 또한 그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겔 42:7]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십 척이니

[겔 42:8]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십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 척이며

[겔 42:9]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겔 42: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겔 42:10] 남쪽 골방 뜰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겔 42: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의 가까이 하는 제

의 제 물을 거기 두었습니다.

- 그런데 이곳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만 언급이 되고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번제의 경우 가족을 제외한 짐승 전체를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올 고기가 없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엔 제사장 뿐 아니라 전가족이 함께 제물을 취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물로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거룩한 방에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만 두었습니다(겔 42:13). 번제와 화목제가 빠져 있습니다.

- 이는 번제의 경우 가족을 제외한 짐승 전체를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올 고기가 없습니다.
- 화목제의 경우엔 제사장 뿐 아니라 전가족이 함께 제물을 취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물로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6)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

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겔 42:13]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장들을 위해 많은 방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 바깥 문에도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동쪽문과 남쪽문과 북쪽문에 각각 6개의 방이 있었으니 전체 18개의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 방은 문지기들을 위한 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또한 안 뜰에도 바깥문과 똑같은 구조와 형식으로 방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만 문지기를 위해 마련된 방은 총 36개입니다.
- 문지기는 레위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겔 44:10-11).

7) 거룩한 방 서편 뒤쪽에 제사장 부엌이 있습니다(겔 46:19).

- 제사장은 이곳에서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구웠습니다(겔 46:20).
-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바깥뜰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백성들과 나눠 먹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 음식을 백성과 나눠먹게 되면 행여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겔 46:20).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 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 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 게되리라

[겔 46: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 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겔 46: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8) 바깥뜰에는 네 개의 부엌이 마련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을 위한 부엌입니다(겔 46:21-24).

- 길이와 넓이는 40x30규빗입니다(겔 46:22). 대략 130평정도 되는 넓은 부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뿐만 아니라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위한 부엌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할 처소도 마련해 주십니다(요 14:2).

9) 에스겔성전과 솔로몬성전이 매우 흡사한 이유.

- 다락방에는 모두 90개의 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방이 많았습니다.
- 솔로몬 성전의 구조는 에스겔 성전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 특별히 방의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 어쩌면 에스겔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 아마도 그가 환상을 볼 때에 그런 선입견이 개입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환상이나 사도요한의 환상

[겔 46:21]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겔 46:22]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겔 46:23] 그 작은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겔 46: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 하러 가노니

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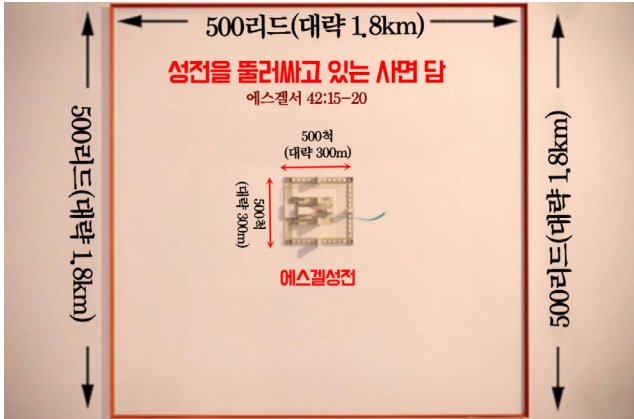
- 다니엘은 다니엘이 처한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소 그가 처한 환경이 묻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환상에는 다소 그가 처한 환경이 묻어 있습니다.

10) 하나님은 눈높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눈높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 그것은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인데 영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중학생인데 대학생들만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 에스겔 성전 외벽

가. 에스겔 성전을 둘러싼 벽



1) 성전 측량이 모두 마친 후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셔서 사방 담을 측량하셨습니다(겔 42:15).

- 측량했더니 동쪽 담이 오백 척이었습니다(겔 42:16).
- 이 부분은 너무나 황당한 오역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척' <암마>는 '리드<카네>'의 오역입니다. 원문에는 모두 '리드(갈대)'로 나옵니다. 왜 리드를 척으로 오역을 했는지 알 바 없습니다만 원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겔 42: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겔 42: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 이요

-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의 크기가 이상해집니다.

2) 동서남북 사방이 500리드라면 그 길이는 대략 1,8km 정도가 됩니다($500 \times 6 \times 60\text{cm} = 1,800\text{m}$).

- 참고로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500척(규빗)입니다.
- 에스겔 성전의 모든 측량 수치는 왕실규빗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측량하는 장대'는 왕실규빗으로 6척 되는 장대를 말합니다. 일반 규빗은 대략 50cm 이지만 여기에 손바닥 넓이만큼 더해진 것이 왕실규빗이니 대략 60cm 정도되는데 이것이 500규빗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략 300미터 정도되는 길이입니다. 이것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두 같은 길이로 500규빗입니다.

3. 이 500규빗이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남북으로 계산하면, 북쪽 바깥문 50척 + 북쪽 바깥문에서 안문까지 100척 + 북쪽 안문 50척 + 안뜰 100척(성전) + 남쪽 안문 50척 + 남쪽 안문에서 바깥문까지 100척 + 남쪽 바깥문 50척 = 500척

입니다.

- 동서로 계산하면, 동쪽 바깥문 50척 + 동쪽 바깥문에서 안문까지 100척 + 동쪽 안문 50척 + 안뜰 100척 + 성전 100척 + 서쪽 건물과 뜰 100척 = 500척입니다.

8.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가. 하나님과의 식사

- 1)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문을 세 차례 방문하셨습니다(겔 40:6, 겔 43:1, 겔 44:1).
 - 모세 성막은 성막문이 동쪽에 만들어 졌습니다(출 27:13).
 -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겔 43:2).
- 2) 하나님은 동쪽문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겔 44:2).
 - 하나님만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동쪽문은 하나님의 문입니다.
 - 겔 44장 1-2절에 '문이 닫혔다'라는

[겔 40: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측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겔 43: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겔 44: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출 27:13]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쇠 규빗이 될지며

[겔 43: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겔 4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돌지니라

단어가 세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동쪽문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 모세성막과 솔로몬성전의 동쪽문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성전과 천국의 성전의 차이입니다. 에스겔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천국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3) 왕에게는 동쪽 현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겔 44:3).

- 동쪽 현관은 동쪽문을 열고 들어서면 볼 수 있는 응접실과 같은 곳입니다.
- 하지만 동쪽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안 길'<데레크>을 통해 동쪽 현관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4) 왕은 현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를 했습니다(겔 44:3).

-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와도 식사를 하셨습니다(출 24:9-11).
- 우리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겔 44: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겔 44: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 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벧전 2:9).

-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계 3:20).

나. 하나님의 영광

1)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겔 44:4).

-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성전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스스로 잘난체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명하셨습니다(겔 44:5).

- '전심으로' <숨레브>라는 말은 <숨>과 <레브>가 합쳐진 말로서,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확립하다'란 뜻입니다.
- '주목하다' <라아아인>은 '보다'란 뜻의 <라아>와 '눈'이란 뜻의 <아인>의 합성로서 "눈으로 자세히 보다"란 뜻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겔 44:4]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겔 44: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입니다.

- 두차례나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반역자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겔 44:6).

- 저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 저들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습니다(겔 44:7).
-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출 12:48).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방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겔 44:8).

2) 이방인이 성소를 더럽힌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 되었습니다(겔 44:7).

- '위반하게 하는 것' <파라르>는 '깨뜨리다', '무효화시키다', '헛되게 하다'

[겔 44:6]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겔 44: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출 12:48]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겔 44:8]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겔 44: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

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 제사장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되었습니다(겔 44:10). '담당하다' <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가지고가다'란 뜻입니다.
-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부유함과 건강의 언약이며 행복과 기쁨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임했습니다.
-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으며 2천 년동안 세상에서 방황했으며 이웃 나라들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겔 44:10]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겔 44:11]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9. 제사장의 의무

가. 제사장의 의무

- 1) 다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겔 44:11).
 -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수종 들게 하

십니다(겔 44:14).

-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겔 44:15-16). 이는 사독 자손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 사독 자손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 때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야를 지지했지만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사독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제국의 안티쿠스4세 왕이 베냐민지파 사람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까지(기원전 171년) 사독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사독은 무려 800년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습니다(솔로몬 왕 즉위 기원전 970년).

2)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게 하셨습니다(겔 44:17).

- '양털옷' <체메르>는 '털이 많다'란 뜻의 어근에서 파생한 말로서 '털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땀이 많이

겔 44: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겔 44: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4: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겔 44: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 옷을 입을 것이니

나게 하는 옷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것은 그만큼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베옷'은 목화를 원료로 하여 만든 삼베로 만든 옷으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 천국의 성도는 반드시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천국의 옷입니다(계 19:8).
- 제사장은 '베 관'과 '베 바지'를 입었습니다(겔 44:18).
- 수종들 때 입는 옷은 거룩한 방에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겔 44:19). 이는 흑시라도 백성들이 제사장 옷을 만짐으로써 자신들도 거룩해진다는 느낌을 가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 오늘날 목회자들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평상복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머리털을 밀지 말고 길게 자라게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겔 44:20).

- '길게 자라게' <예실레후>라는 단어는 '느슨하게 하다', '풀어 헤치다'란 뜻입니다.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더라

[겔 44:18] 가는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말 것이며

[겔 44:19]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겔 44:20]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지말 것이며

-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 머리를 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장들이 죽은 자의 신을 섬길 때 머리를 밀었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제사장은 안뜰에 나아갈 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겔 44:21).

-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안뜰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음을 말합니다.
- 예수님도 술을 허용하셨습니다(요 2:7-9, 마 11:19).

5)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겔 44:22).

- 제사장은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겔 44:21] 아무 제사장 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 11: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겔 44:22]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과부'나 '이혼한 여인'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 뿐입니다.
- 과부 중에서도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 중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 오늘날은 여자 목회자가 많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모두 여성을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6)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겔 44:23).

- '가르치다' <아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세심히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겔 44:23]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 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 하게 할 것이며

-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고후 4:4). 혼미케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이 혼미해지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 목회자나 성도 모두 영분별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 마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제사장은 재판관 잘 해야만 합니다(겔 44:24).

- 오늘날 재판관은 세상의 법에 의해 세워진 재판관이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 제사장은 옳바른 재판을 위해 정결과 거룩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재판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8. 제사장은 모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겔 44:24)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겔 44: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겔 44:24]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매 주), 월삭제사(매월 첫날), 속죄제사 (7월 15일), 유월절제사(1월 14일), 무교절제사(1월 15-22일), 장막절 제사(유월절 후 50일째), 초막절 제 사(7월 15-22일), 초실절제사(무교 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날), 나팔절 제사(7월 1일)이 있습니다.

9) 제사장은 시체로부터 정결해야 합니다 (겔 44:25).

-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 장으로하여금 시체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간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레 21:11).
- 시체로 부정결해진 제사장으로 하여금 7일동안 정결할 기회를 주십니다 (겔 44:26). 7일간 회개하고 마지막

[겔 44:25]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레 21:11] 어떤 시체에 듣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겔 44:26]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일을 더 지낼 것이요

날 성전에 나와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겔 44:27).

[겔 44:27] 성소에서 수
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
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
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 제사드릴 때 제물의 양

1)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정 해졌습니다.

- 곡식의 경우엔 수확한 양의 1/60을
드려야 했습니다(겔 45:13).
- 기름의 경우엔 1/100의 양만큼 드려
야 했습니다(겔 45:14).
- 양의 경우엔 1/200마리를 드렸습
니다(겔 45:15). 보통적으로 1년에
3-4마리 양을 바쳐야 했는데 천국에
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은 매우 적은
분량입니다.
- 유대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
는 유월절제사, 무교절제사, 오순절
제사, 나팔절제사, 속죄일제사, 초막
절제사와 상번제, 안식제, 월삭제를
드렸는데 제사때마다 양 1마리 정도
를 바쳐야 하는데 1년에 상당히 많
은 양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다가 헌신제사와 감사제사와 화목제
사를 위해 드리는 제사까지 포함하

겔 45:13 너희가 마땅
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
니 밀 한 호멜에서는 육
분의 일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육
분의 일 에바를 드리며

[겔 45:14]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
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
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십 밧은 한 호
멜이라)

[겔 45:15] 또 이스라엘
의 율택한 초장의 가축
때 이백 마리에서는 어
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
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
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 마리 중 1마리만 드리라는 것은 10년에 1마리 정도 드리면 된다는 것이니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여기에 언급된 제물의 양은 왕에게 드리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왕은 이렇게 거둬드린 세금을 하나님께 일정양 드려야 합니다.

다. 왕과 백성이 드리는 제사

1) 하나님은 각종 절기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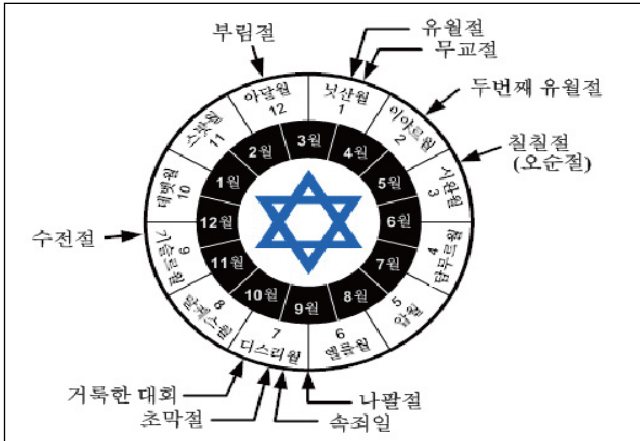
- 민간력 1월 1일(7월 1일)에는 나팔절을 드렸습니다(겔 45:18). 나팔절에는 수송아지 한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 민간력 1월 7일(7월 7일)에는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겔 45:20). 이 세상에서의 속죄일은 1월 10일입니다. 오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성전은 천국의 성전이기에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교력 1월 14일(민간력 7월)에는 유

[겔 45: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겔 45: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월절을 드렸습니다(겔 45:21). 15일부터 1주일간 무교절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에는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숫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겔 45:23). 또한 소제도 드렸는데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와 숫양 1마리에 한 에바와 기름 한 힌을 함께 드렸습니다.

- 민간력 1월 15-22일(7월 15-22일)에는 초막절 제사를 드렸습니다(겔 45:25). 이 때에도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2) 왕과 백성은 동쪽 문 안뜰 문 통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겔 46:2).

- 동쪽 안뜰 문은 안식일에는 열고 월

[겔 45:21]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월절을 칠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겔 45:23] 또 명절 칠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의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겔 45: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겔 46: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삭(초하루)에도 열라고 명하셨습니다(겔 46:1). 하지만 6일동안은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 왕과 백성은 바깥문을 통하여 들어와서(동쪽문은 사용금지) 동쪽문 현관 문벽 곁에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문 통로에서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 그곳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감사제는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해야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 왕과 백성은 동쪽 안뜰 문 통로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성전에서는 왕이 안뜰까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왕하 23:3).

3) 안식일 제사와 월삭 제사가 모세시대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 안식일 제사의 제물이 모세시대 때 드린 제물의 양보다 더 많아졌습니다(민 28:9, 겔 46:4). 모세시대 때는 수양 2마리와 가루 1/10을 드렸습

[겔 46: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열리는 옛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왕하 23:3]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민 28:9] 안식일에는 일년되고 흠없는 숫양 두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겔 46:4]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양여섯마리와 흠없는 숫양한마리라

니다. 그런데 새 땅의 성전에서는 어린양 6마리와 수양 1마리와 가루 1에바를 드렸습니다.

- 매우 파격적으로 제물 양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의미가 이 땅에서보다 새 땅에서 더욱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 그런데 초하루 제사(월삭 제사)의 제물은 반대로 줄었습니다(민 28:11-13, 겔 46:6). 모세시대 때는 수송아지 2마리+가루 3/10, 수양 1마리+가루 2/10, 어린양 7마리+가루 1/10을 드렸는데, 새 땅에서는 수송아지 1마리+가루 1에바, 수양 1마리+가루 1에바, 어린양 1마리+가루(원하는 양만큼)을 더해 드렸습니다.
- 대체적으로 새 땅에서는 육식 제물이 줄고 곡식 제물은 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식이 중요하지만 새 땅에서는 곡식이 육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4) 제사 드리러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갈 수 없었습니다.
-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북문과 남문을 이용합니다. 그

[민 28:11]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겔 46:6]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런데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겔 46:9).

-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갈 때에 혼잡스러워질 것입니다.
- 하나님은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눅 9:62).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히 10:38).

5) 백성은 상번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겔 46:13-15).

- 상번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 제사 준비는 백성이 했지만 제사 집행은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 모세시대 때는 상번제를 하루에 두 차례 드려졌습니다(민 28:3-4). 새 땅에서는 아침마다 드려집니다. '아침마다' <바보케르 바보케르>라는 말은 아침에만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저녁제사가 폐지되었음을

겔 46: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눅 9:62] 예수께서 이르시되 후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겔 46:13]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겔 46: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한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뜻합니다.

- 새 땅에서 상번제가 아침에만 드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매일 새롭게 시작됨을 상징하고,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릴 소제라
[겔 46: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라. 제사장의 기업

1)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업이 되십니다(겔 44:28).

- '기업' <나할라>는 분배받은 토지를 의미하고 '산업' <아후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는 분배받은 토지가 없습니다.
- 제사장에게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겔 44:29).
-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은 빠져 있는데, 번제는 태웠기 때문에 없고 화목제의 제물은 가족들과 함께 취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의 소산 중에서

[겔 44:28]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겔 44:29]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제 제물을 주셨습니다(겔 44:30).
- 하나님은 백성에게 첫 소산물을 바치게 하셨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신 18:4).
- 자연사한 시체나 찢기고 물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어선 안 됩니다(겔 44:31). 부정한 음식은 제사장의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겔 44: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하라

[신 18:4]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겔 44:31]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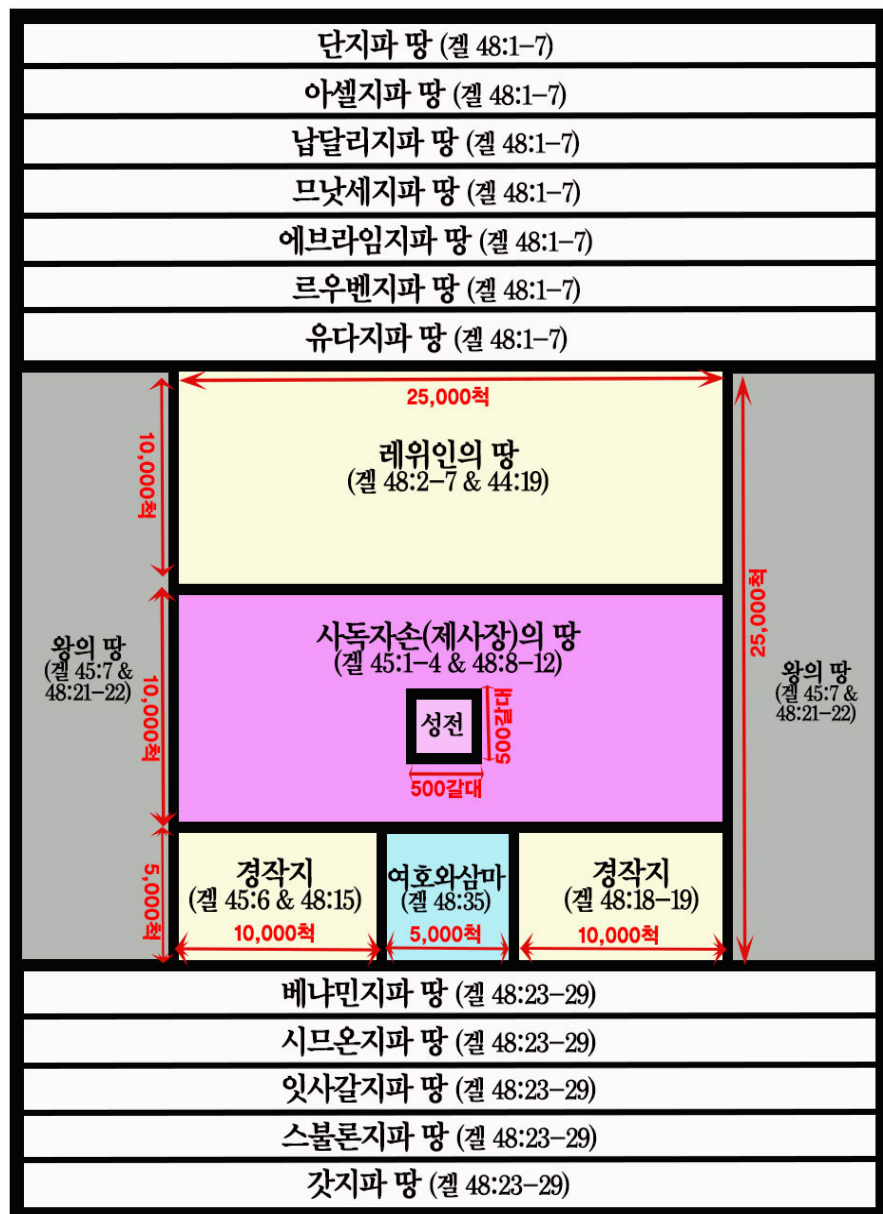
/

천국의 땅

천국에서의 땅의 배치

[겔 45장 & 48장]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www.RevivalForChurch.com)



제 5 장 천국의 땅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천국에서의 땅의 배치

가.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땅을 배치하셨습니다 (겔 45:1).

- 에스겔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 새 땅에서의 땅의 배분을 가나안 정복 당시의 땅을 분배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셨습니다(겔 45:1).
- 제비뽑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돈 많고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더 많은 땅을 차지

[겔 45:1]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분배됩니다.

나. 거룩한 땅을 구분하셨습니다(겔 45:1).

-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 '예물' <테루마>는 '집어들리다', '높이다'란 뜻을 가진 <룸>이란 단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것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 놓는 방식의 제사인 '거제'나 제물을 좌우로 흔드는 제사인 '요제'를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겔 45:3).

- 거룩한 땅의 길이와 넓이는 25,000척 x 10,000척입니다(겔 45:1).
- 성전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500척 x 500척이었습니다(겔 45:2). 그런데 이것은 원어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갈대'(reeds)를 '척'(규빗)으로 오역한 것입니다(겔 42:20 킹제임스흠정역).

라.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겔 45:4).

-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땅에다가 집을 짓

[겔 45:3]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돌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

[겔 45:2]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십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겔 45:20] 또 너는 그 달의 일곱째 날에 잘못하는 모든 자와 단순한 자를 위해 이처럼 행할 지니 너희는 이처럼 그 집이 화해를 이루게 할 지니라.(킹제임스흠정역)

고 살 것입니다.

- 거룩한 땅은 천국의 땅에서 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천국의 중심임을 뜻합니다.
-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 모세 시대 때에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잠시 멈출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민 2:2). 발행할 때는 성막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민 9:17).



[겔 45:4] 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민 2:2]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민 9: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 누가 땅을 소유하는가

가.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한 땅을 예비하셨

습니다(겔 45:5).

- 레위인들의 땅은 제사장의 땅과 붙어 있었습니다.
- 제사장들에게 준 땅의 크기와 같았습니다.

나. 거룩한 땅 옆에는 백성들이 공용으로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 하나님은 '속된 땅'을 준비하셨습니다(겔 48:15). '속된' <홀>은 불경스럽다는 뜻보다는 '보통'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땅에 비해 다소 속되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 백성이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원을 삼게 하고 마을주민 센터처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새 땅에서는 '속된 땅'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 속된 땅 가운데는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이 있습니다(겔 48:35).

-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란 뜻입니다.
- 사방 합계가 18,000척인 것은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이기 때문입니다. 한 면의 길이가 4,500척인 것은 500척이 구별된 뜰로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겔 45:5] 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겔 48:15]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겔 48: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경계선입니다.

라. <여호와삼마> 성에는 출입구가 네개 있습니다(겔 48:31).

- 동서남북 네군대 있습니다.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어서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겔 48:31-34).
- 북쪽의 출입구는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이 있습니다(겔 48:31).
- 동쪽의 출입구는 요셉문, 베나민문, 단문이 있습니다(겔 48:32).
- 남쪽의 출입구는 시므온문, 잇사갈문, 스블론문이 있습니다(겔 48:33).
- 서쪽의 출입구는 갓문, 아셀문, 납달리문이 있습니다(겔 48:34).

마. 왕에게도 땅이 주어졌습니다(겔 45:7, 겔 48:21).

- 하나님께서 왕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저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겔 45:8). 또한 백성의 기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겔 46:18).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왕들이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길 원

[겔 48: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겔 45:7]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 지니라

[겔 48:21]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몫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겔 45:8]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

하십니다(겔 45:9).

- 하나님은 왕이 공정히 행하길 원하십니다(겔 45:10).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정한 저울과 저울추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부당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 왕이 한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 그 땅은 그 아들의 것이 됩니다(겔 46:16). 하지만 한 종에게 땅을 선물로 줬을 때는 희년까지만 종의 것이 됩니다(겔 46:17).

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겔 48장).

- 유다지파가 성소와 가장 가까이 배치되었습니다(겔 48:8).
-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유다지파부터 나열하면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지파 순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에서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배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잇사갈, 스블론, 납달리, 아셀, 단 지파 순서).
- 남쪽 땅은 베냐민 지파가 선두에 있으며 시므온, 잇사갈, 스블론, 갓 순서입니다

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지파대로 줄지니라

[겔 46: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겔 45: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 45: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바트를 쓰지니

[겔 46:1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겔 48:23).

- 지파의 배치를 자세히 보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가 거룩한 땅에 가까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귀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 남과 북을 5대5로 나누지 않고 5대7로 분리하신 이유는 7은 천국의 숫자이며 완전한 숫자이지만 5는 7을 보충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악의 세력이 강한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도 강합니다.

의 기업을 되며 그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 나와

[겔 46: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겔 48: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겔 48:23]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6 장

/

천국의 생명수

제 6 장 천국의 생명수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가.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 1) 에스겔 성전에는 생명수가 충만했습니다.
 - 주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 바깥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겔 47:2). '스며 나오다'라<파카>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는 말은 물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 동쪽으로 나아가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널 때에 그 물이 에스겔 발목까지 찼습니다(겔 47:3). 성전길이가 500규빗이니 성전의 두배 되는 길이를 측량한 것입니다.
- 주님은 에스겔 성전의 물을 총 4차례 측량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물이 점점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 두번째 측량했더니 그 물은 무릎까지 올랐고 세번째는 허리까지 찼습니다(겔 47:4).
- 네번째 측량했을 땐 해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겔 47:5).

2) 생명수는 만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에스겔이 강 좌우편을 바라봤더니 나무가 심히 많았습니다(겔 47:7). '많더라' <리브>는 '풍성한'이란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무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열매까지 풍성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겔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겔 47: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겔 47: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 사해까지 다 달았습니다(겔 47:8).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430미터나 낮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생명수를 통해 살아납니다.
-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면 살아납니다(요 4:14).
- 사해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기가 심히 많아졌습니다(겔 47:9). 어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겔 47:10).
-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새로운 삶이 이뤄집니다.

3)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겔 47:11).

- '진펄' <비차>는 '진흙 수렁'을 의미하고 '개펄' <게베>는 '물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진펄과 개펄이 되어 고인 물들은 계속해서 증발됨으로써 소금층이 쌓여서 결국 못쓰는 물이 되고 맙니다.
- 우리 삶도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살지만 진펄이나 개펄과 같은 사람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진펄같은 사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 살아나리라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10]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리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람은 꿈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감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척척하고 항상 습한 사람입니다. 개펄같은 사람은 속이 좁습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 뿐이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도 알지 못합니다.

-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겔 47:12).
- 주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온다 하셨습니다(요 7:38).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 나와야 합니다. 사회와 나라에도 흘러나와야 합니다.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2. 천국의 생명수

가. 오직 만국 백성만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 1)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뿐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만국'으로 표현됩니다.

- 만국'은 바로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나라'가 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벧전 2:9).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 거룩한 성은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께 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 마치 집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은 거룩한 성에 거주하십니다.
- 그 모습을 사도요한은 보았습니다(계 21:22-23).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3)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 거룩한 성에 흐르는 생명수

1) 거룩한 성에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립니다(계 22:1).

2)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강을 이룹니다.

- 그 생명수 강물은 흘러내려서 천국에 까지 이룹니다.
- 천국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그 생명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그런데 생명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 생명나무에는 생명열매가 있으며 생명나무 잎사귀도 풍성합니다.
- 그 열매와 잎사귀는 천국 백성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취하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계 22:2).

4)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하게 하는 물입니다.
-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요 4:13-14).

[계 22:1]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 4: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어떻게 마실 수 있나?

1)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요 7:38).

2)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래 배에서는 세상의 정욕이 흘러나오고 탐욕의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 배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가득차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은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 그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에덴동산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창 2:9-10).

4) 에덴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생명수가 흐를 때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
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
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
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
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
무도 있더라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
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7 장

/

곡과 마곡의 전쟁

제 7 장 에스겔 성전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

가.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하
십니다

- 1)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
졌던 두 나라를 다시금 하나로 하시고
하나된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셨습니
다.
 -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간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첫번째 귀환은 기원전 538년이었으니 거의 70년 만에 귀국한 것입니다.
-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렘 29:10).

2)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기원후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마 24:1-2).

- 그 이후 2천년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예언된 말씀대로 이뤄진 것입니다(눅 21:24).
- 2천년동안 세계에 흩어짐을 당한 후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한 나라로 세우실

[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마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눅 21: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것입니다(겔 37:21-23).

나. 곡과 마곡을 들어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십니다

1) 하지만 말세 때에 곡과 마곡을 들어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십니다(겔 38:3).

-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마곡 땅을 의미합니다(겔 38:2).
- 이를 통해 우리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마곡이며 곡은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마곡의 통치자 곡은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겔 38:5-6).

2) 에스겔서 38장에 언급된 나라들의 이름과 오늘날의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로스=러시아, 메섹=조지아와 터기북동부, 두발=터키, 도갈마=아르메니아, 바사=이란, 고멜=유럽지역, 붓=리비아, 구스=에티오피아와 수단.
-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자료와

[겔 37: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겔 37:22]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 37: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겔 38:2]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

데이터를 통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부분의 나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
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
와 함께 끌어내리라



- 3) 하나님은 말세 때에 곡 왕과 마곡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연합국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 아직까지는 이곳에 언급된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 하지만 현재 이란과 심각하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 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쩌면 이 전쟁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제3차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하나님은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말세에 얼마나 많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 주십니다.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습니다(계 20:7-10).

-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 하지만 이 두 전쟁 모두 사탄에 의해 일어난 것은 같습니다.
-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이 무저갱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 사탄이 있는 곳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오직 화

[계 20: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계 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 20:9]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평 뿐입니다.

-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에는 오직 평화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곳엔 언제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6)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십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갈 3:29).

7)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배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교회에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성도도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 1)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겔 38:16).
- 2) 하나님께서 일부러 곡 왕을 선동케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입니다(겔 38:18).
-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게

[겔 38: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겔 38: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실 것입니다(겔 38:19).

-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의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 이것은 그만큼 적군의 침입이 턱 끝까지 차 올랐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말입니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내신 것입니다. 적군을 땅 속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한 무리들을 죽이기 위해 지진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땅 속에 떨어지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민 16:31-35).

4) 고라는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 그는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전체가 거

겔 38:19]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민 16:31]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민 16: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민 16:33]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민 16:34]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민 16:35]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 살렸더라

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서있는 땅에 지진이 있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저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무리들을 칼로 치셨습니다(겔 38:21).

5)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대적자들끼리 싸워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서로의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적군끼리 서로 죽이게 한 사건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작은 군대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드온은 향아리와 나팔, 횃불을 사용해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사 7:22).
-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삼상 14:20).

겔 38:2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사 7: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다에 이르렀고 또 답뱃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삼상 14:20]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할 때, 모압군은 혼란에 빠져 서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왕하 3:23).
 -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적군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대하 20:22-23).
- 6) 또한 하나님은 전염병과 피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겔 38:22).
- 또한 하나님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에게 폭우가 임할 것이고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릴 것입니다.
 - 우리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창 12:3).
 -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하 3:23]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대하 20: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대하 20: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겔 38:22]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는 자
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형벌을 받
게 될 것입니다.

2. 곡과 마곡의 최후

가.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 1)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곡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겔 39:1).
- 2)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이뤄졌습니다.
 -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곡 왕을 따르는 여러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 이들은 곡 왕과 함께 연합국을 이뤄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겔 38:5-6).
 - 이들 지역 이름은 대략적으로 러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나라들입니다.
- 3)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곡 왕은 여러 연합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

[겔 39: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겔 38:5]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겔 38:6]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 마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니다.

-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되었습니다(겔 20:7-8).

4)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은 마귀로부터입니다.

-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마귀는 그 옥에서 풀려납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날 때에 사람을 미혹하고 모아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 에스겔서 38-39장에 언급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단지 러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나라들의 연합국과의 전쟁만은 아닙니다.

5) 이러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지고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겔 20:7]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겔 20:8]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 이 지구에 인간이 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역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역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6)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쟁 뿐입니다. 마귀가 하늘에 있을 때에 하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계 12:7-9).

- 마귀가 땅에 있으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앗수르 제국과도 전쟁을 치렀고 바벨론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마와도 전쟁을 치렀으며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7)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모든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앞으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로 일어날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 왕의 연합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겔 39:5).

- 하나님은 곡 왕의 연합국을 패배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높이실 것입니다(겔 39:7).

8) 마귀와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요 19:30).

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 1)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대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겔 39:8).

[겔 39:5] 네가 빈 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겔 39: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요 19:30]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겔 39:8]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2)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수거하여 불태울 때에 그 기간이 7년이 나 될 것입니다(겔 39:9).

- 얼마나 그들의 무기가 많으면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7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고 엄청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데에는 7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겔 39:12).

-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면 매장하는데만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무기가 태워지는데 7년이 걸리고 시체가 매장되는데 7개월이 걸렸다는 말은 정결케 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함을 입었습니다(민 19:11).

- 무기가 정결해지는데 7년이 소요되고 시체가 정결해지기 위해 7개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해지기가 어렵

[겔 39:9]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겔 39:1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민 19: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7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죄는 7개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저주는 7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결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식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피를 쏟아 부으십니다

1)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겔 39:2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겔 39:23).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면 곤란합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

[겔 39: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겔 39:23]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엮으리니 되

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얼굴' <파님>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성막의 진설병은 '얼굴 떡'입니다. '진설'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얼굴 떡'입니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요 6:51).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 그런데 참으로 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요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께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거부하다니요?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 <루아흐>를 쏟아 부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겔 39:29).

- '쏟아 붓다' <사파크>는 '쏟다'라는 뜻 외에도 '붓다', '따르다', '흘리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쏟아붓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더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나요? 더럽게 느껴지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겔 39: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피를 당신의 몸에 뿌려본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집에
뿌려본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예수
님의 피를 당신의 가족들에게 뿌려본 적
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피
를 단 한 번도 뿌린 적이 없다면 당신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
성과도 같을 것입니다.





8 장

/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제 8 장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훈련 목적

- *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인가?
- *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해방이란?
- * 에스겔성전은 무엇이 다른가?
- * 생명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 *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 * 에스겔서를 읽는다.

1.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치셨다

- 1)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경고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겔 13:2).
- 2)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

[겔 13: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까닭은 저들이 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겔 13:3).

3)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내치셨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저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기 때문입니다(겔 13:9).

4)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허탄한 묵시를 봅니다.

- '허탄한 묵시'는 헛되고 공허한 환상을 말합니다. 사실적이지 않는 환상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환상입니다. 저들이 보는 환상은 자기 뜻대로 보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런 허탄한 묵시를 보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 오늘날에도 이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아닌 자기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낸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역는 거

[겔 13:3] 주 여호와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겔 13:9]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짓된 말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 것을 점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음성입니다.

-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음성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 18:22).
- '증험' <하야>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 '성취함' <보>은 '받아드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이의 심령 깊숙히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성취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는 그 어떠한 증험이나 성취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 18: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 거짓선지자는 거짓된 담벼락을 세우는 자이다

1) 거짓 선지자는 회칠한 담벼락과 같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겔 13:10).

-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담벼락에 회칠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들이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 저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주로 바벨론에 끌려온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유수기간이 곧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2) 예수님도 회칠한 사람에 대해 질책하셨습니다(마 23:27).

-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저들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척 했기 때문입니다.
-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거짓된 담벼락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워

[겔 13:10]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 도다

[마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하도다

진 담벼락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데 그 저주가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3)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십니다(겔 13:13).

-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멸절시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양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다 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미 3:11).

[겔 13: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미 3: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4) 오늘날에도 거짓된 말로 백성을 유혹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감추려고 담벼락에 회칠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당장에 임할 것인

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
자가 있습니다.

- 이러한 목회자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
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목회
자는 자신도 망하게 만들지만 백성
들도 망하게 만듭니다.

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선지자

1) 하나님은 거짓된 여선지자들을 경고하 셨습니다.

-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
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
건을 만드는 여선지자들입니다(겔
13:18).
- '부적'<케세트>은 '띠'입니다. 이들은
손목에 띠를 묶고서 예언을 전했는
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
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사용된 것
입니다. 신령해 보이기 위해 사용하
는 도구입니다. 이는 마치 목회자가
신방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목에 걸

[겔 13: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
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
건을 만드는 여자들에
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
혼은 사냥하면서 자기
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
리려하느냐

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자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착용하는 것들입니다.

- '수건' <미스파하>은 머리에 쓰는 베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케 하기 위해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예언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수건을 올려놓는 행위나 손목에 차는 띠같은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옷을 입고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모습을 취하지 않아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령해 보이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 하나님은 이들 여선지자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질책하셨습니다(겔 13:19).

- 선지자는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겔 13:19]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선 안 됩니다.

2. 유혹받는 지도자와 선지자

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지도자들

- 1)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겔 14:1).
 -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 중의 대표자입니다.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가 하나님의 대표자인 선지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장로가 선지자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목회자 앞에 나와야 합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게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겔 14:3).
 - '들이다' <알라>라는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뭔가를 바치기

[겔 14:1]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아와 내
앞에 앉으니

[겔 14:3] 인자야 이 사
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
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
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
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
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
하랴

위해 우상 제단에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또한 저들은 최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걸림돌' <미크솔>은 '넘어지게 하는 것', '장애물'을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장로는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여 죄를 짓는 자입니다.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그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백성은 누구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자녀가 어찌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성도가 어찌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까?
-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벌을 가하실텐데 저들이 섬긴 우상의 수효대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겔 14:4).

3)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겔 14:7-8).

-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4) 저들이 왜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어찌하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겔 14:7).

-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찾지만 하나

[겔 14:4]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겔 14: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겔 14: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 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14: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님을 위해 오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 4)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는 우상을 위하는 자입니다. 우상이 필요한 까닭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우상입니다. 열심히 배우자를 섬기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위해 뭔가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 하나님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해서 남편에게 찾아와 그 남자를 위해 돈을 달라고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하면 남편이 기분 좋게 돈을 주겠습
니까?(사 54:5)

나. 마귀의 유혹을 받은 선지자들

- 1)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을 멸하신다 하셨습니다(겔 14:9).

- '유혹을 받다' <파타>라는 말은 '넓다'(wide)라는 말입니다. 너무 넓어서 들어올게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 넓어서 죄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선지자의 마음이 넓어 죄가 그리 쉽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마음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문단속을 잘해야 도둑이 안 들어오듯이 마음 단속을 잘해야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큰 유혹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사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사 14:9]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사람이 죄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재물을 주고 사람이 영광을 주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9절을 자세히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겔 14:9).
"... 나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9절 중).

- 이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선지자가 죄를 범했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했다는 말은 성도 입장에서는 사뭇 기분 나쁜 말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의인이라는 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식의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사 14:9]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뜻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전할 때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할지라도 선지자는 여전히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여전히 성도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할지라도 성도의 자리에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훼방하는 심각한 죄를 지을 경우는 성도의 자리도 박탈당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죄는 성도의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만일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계산했다면 어느 누구도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죄를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목자

1)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

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함으로써 거짓된 목자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2) 거짓된 목자는 "자기만 먹는" 목자입니다(겔 34:2).

- '먹다' <하우 로임>라는 말은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다'란 말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매우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먹어 치우는 돼지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 이 단어는 비단 이스라엘 왕에게만 국한된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지도자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이 단어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총체적인 위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정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겔 34: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 이마땅하지 아니하니

기독교 목사들 때문입니다.

3) 저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합니다(겔 34:3).

- '기름' <헬리브>는 '살찌다'란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드려진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고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 함께 먹고 마시면 좋은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선지자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파는 여인과의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도자들은 추하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더럽다는 이유 때문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구별된다는 이유 때문

[겔 34: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4)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마 8:17).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겔 34:4).
-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상석에 있고 백성들은 밑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상석보다 말석에 앉을 것을 권하셨지만 이 땅의 지도자들은 말석보다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눅 14:8-9).
-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겔 34: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 스렀도다

[눅 14: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눅 14:9] 나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옆 자리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라.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 1) 하나님은 양과 양을 구분하시고 숫양과 숫염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겔 34: 17).
 - 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습니다.
 - 또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차적으로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면서도 좋지 않는 양이 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 또한 하나님은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겔 34:17]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구분하십니다(겔 34:20).

- '살진 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 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파리한 양은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 교회 내에서도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살진 양은 살진 양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파리한 양들은 누구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진 양같은 사람이 있고 파리한 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 하나님은 살진 양들이 파리한 양들을 돌봐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시 68:5).

- 3)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돈을 꺾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배의 이자를 붙여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기본 원리입니다(잠 19:17).

시 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4) 하나님은 '살진 양과 같은 자들의 만행을 지적하셨습니다(겔 34:18).

- '남은 꼴'은 남은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추수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곡식 일부를 남겨 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곡식을 가져가게 하기 위함이었습시다. 그런데 '살진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남은 곡식을 먹지 못하게 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살진 양과 같은 사람들은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을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았습니다(겔 34:21).

5)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겔 34:23).

- '다윗'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다

[겔 34:18]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겔 34: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셨을까요?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다윗왕과 같은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파리한 양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살진 양과 같은 사람을 심판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백보좌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그때에 살진 양과 파리한 양이 구분될 것입니다 (계 20:12-15).

[계 20:12] 또내가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에스겔서 영맥풀이 교재

초판발행 2025. 5. 31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